

간행물 등록번호

B552995-011-2022-25-03

2021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022. 6.

보고서 길라잡이

- 본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집한 2021년 식품안전정보를 토대로 작성함
- 본 보고서는 크게 식품안전정보의 ‘일반 동향’과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분석으로 구성함
 - ☞ 식품안전정보 일반 동향 : 연간 수집한 식품안전정보의 지역별, 국가별, 기간별 현황과 정보구분별, 식품유형별, 원인요소별 현황을 분석
 - ☞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기간별, 국가별(생산국), 식품유형별, 원인요소별 현황과 복합요소들을 교차 분석
- <제3장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의 해외 위해식품정보는 공신력 있는 해외 정부기관 등이 발표한 해외 위해식품정보에서 분석 기본요소*를 갖춘 정보들만 선별한 정보를 의미함
 - * 식품유형, 원인요소, 생산국(원산지 또는 제조국)
- <제4장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요소별 현황>은 해외 위해식품정보 1건에 해당하는 원인요소가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분할 처리하였으며, 잠재적 위해도가 높은 주요 항목에 대하여 분석함
 - * ①잔류농약, ②미생물, ③곰팡이독소
- 도표의 부호 [-]은 건수 ‘0’을 의미함. 단위 미만의 숫자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과 총 합계의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어의 정의

식품안전정보

- 식품(농·축·수산물, 건강식품류,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 포함)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등이 발표하는 자료

정보출처

-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NGO), 전문기관 등 식품안전정보의 수집 출처

검색어

- 정보수집 시 사용하는 식품안전 등과 관련한 단어

분류체계

- 정보의 기초 통계분석을 위하여 식품안전정보를 지정된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정보의 구조화된 체계

정보구분

- 정보의 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위해식품정보) 특정 식품의 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 정보(예: 회수, 폐기 등)
(법 제 도 정 보) 식약처 등 국내외 국가기관이 발표한 법령, 제도, 기준규격 등의 제·개정 정보
(연구평가정보) 학계, 정부 등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안전성·위해성 평가 결과 정보
(글로벌동향정보) 식품안전 관련 주제의 동향정보 또는 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의견, 동향 유형의 정보

식품유형

- 정보발생의 원인이 된 식품의 종류

원인요소

- 정보의 발생 원인·계기에 대한 분류로 원인물질 또는 상황에 따라 구분

생산국

- 위해식품정보에 공개된 원산지 또는 제조국을 지칭하며, 정보 중 원산지 불명 시, 정보출처(발표국)를 생산국으로 간주

목 차

요약	1
-----------------	----------

제1장 개요	7
---------------------	----------

I. 목적 및 근거	8
------------------	---

II. 정보수집 · 분석체계	9
-----------------------	---

제2장 식품안전정보 일반 동향	13
-------------------------------	-----------

I. 식품안전정보 일반 동향	14
-----------------------	----

1. 개요	14
-------------	----

2. 지역별 현황	14
-----------------	----

3. 국가별 현황	15
-----------------	----

4. 정보구분별 현황	16
-------------------	----

5. 식품유형별 현황	17
-------------------	----

6. 원인요소별 현황	18
-------------------	----

7.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	19
----------------------------------	----

8. 코로나19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	20
--------------------------------	----

제3장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21
-------------------------------	-----------

I.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22
-----------------------	----

1. 개요	22
-------------	----

2. 기간별 현황	22
-----------------	----

3. 생산국 현황	23
-----------------	----

4. 식품유형 현황	36
------------------	----

5. 원인요소 현황	38
------------------	----

목 차

II. 생산국-식품유형-원인요소 교차분석 현황	40
1. 생산국-식품유형 현황	40
2. 생산국-원인요소 현황	43
3. 식품유형-원인요소 현황	45
4. 생산국-식품유형-원인요소 현황	47

제4장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요소별 현황 ... 49

I. 잔류농약	50
II. 미생물	57
III. 곰팡이독소	62
IV. 동물용의약품	63

붙임 64

붙임 1. '21년 식품유형별(중분류) 식품안전정보 현황	
붙임 2. '21년 원인요소별(중분류) 식품안전정보 현황	
붙임 3. '21년 식품안전정보 식품유형별(대분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붙임 4. '21년 상위 10개국 식품안전정보 식품유형별(대분류) 현황	
붙임 5. '21년 상위 10개국 식품안전정보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	
붙임 6.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현황	
붙임 7.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붙임 8.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붙임 9.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별(중분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목 차

< 표 목 차 >

- 표 1-1. '19~'21년 식품안전정보 수집 현황 (상위 10개)
- 표 1-2.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식품유형별(대분류) 현황
- 표 1-3.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
- 표 1-4.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정보의 정보구분별 현황
- 표 1-5. '20년 및 '21년 코로나19 관련 해외 정보의 주제별 현황
- 표 2-1. '19~'21년 프랑스산 정보 발표국 현황 (상위 3개국)
- 표 2-2.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 현황 (상위 10개)
- 표 2-3.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 표 2-4. '20년 및 '21년 프랑스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5. '20년 및 '21년 프랑스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6. '20년 및 '21년 중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7. '20년 및 '21년 중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8. '20년 및 '21년 미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9. '20년 및 '21년 미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0. '20년 및 '21년 일본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1. '20년 및 '21년 일본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2. '20년 및 '21년 벨기에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3. '20년 및 '21년 벨기에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4.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 표 2-15.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6.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20개)
- 표 2-17.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생산국-식품유형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 표 2-18.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19.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20.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중분류)-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 표 2-21.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20개)

목 차

< 표 목 차 >

- 표 3-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잔류농약 현황
- 표 3-2.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 현황
- 표 3-3.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 표 3-4.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식품 유형(소분류) 현황
- 표 3-5.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 현황
- 표 3-6.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 표 3-7.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유럽연합 RASFF 발표 정보의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 현황
- 표 3-8.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미생물별 현황 (상위 10개)
- 표 3-9.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관련 지역별 현황
- 표 3-10.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세균수 및 대장균군 관련 지역별 현황
- 표 3-1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살모넬라 관련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 표 3-12.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리스테리아 관련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 표 3-13.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곰팡이독소 현황
- 표 3-14. '21년 곰팡이독소 관련 발표국(상위 2개국) 및 생산국(상위 3개국) 현황 (상위 2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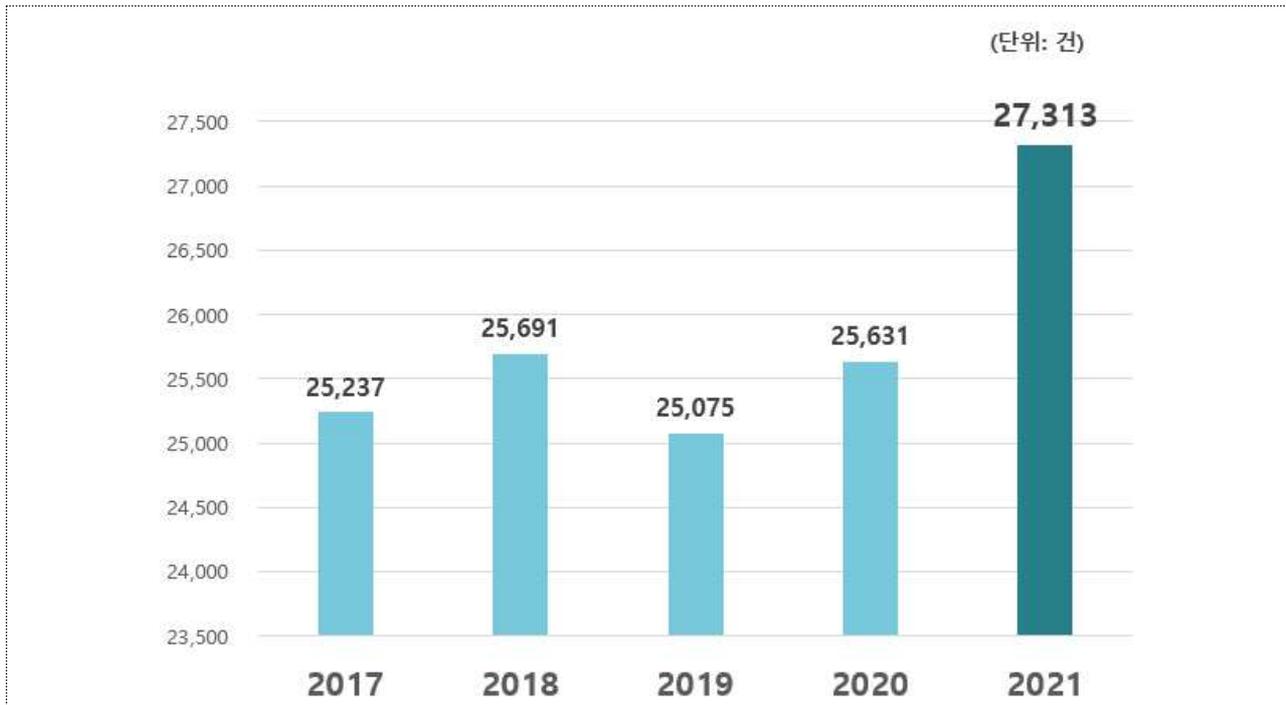
목 차

<그림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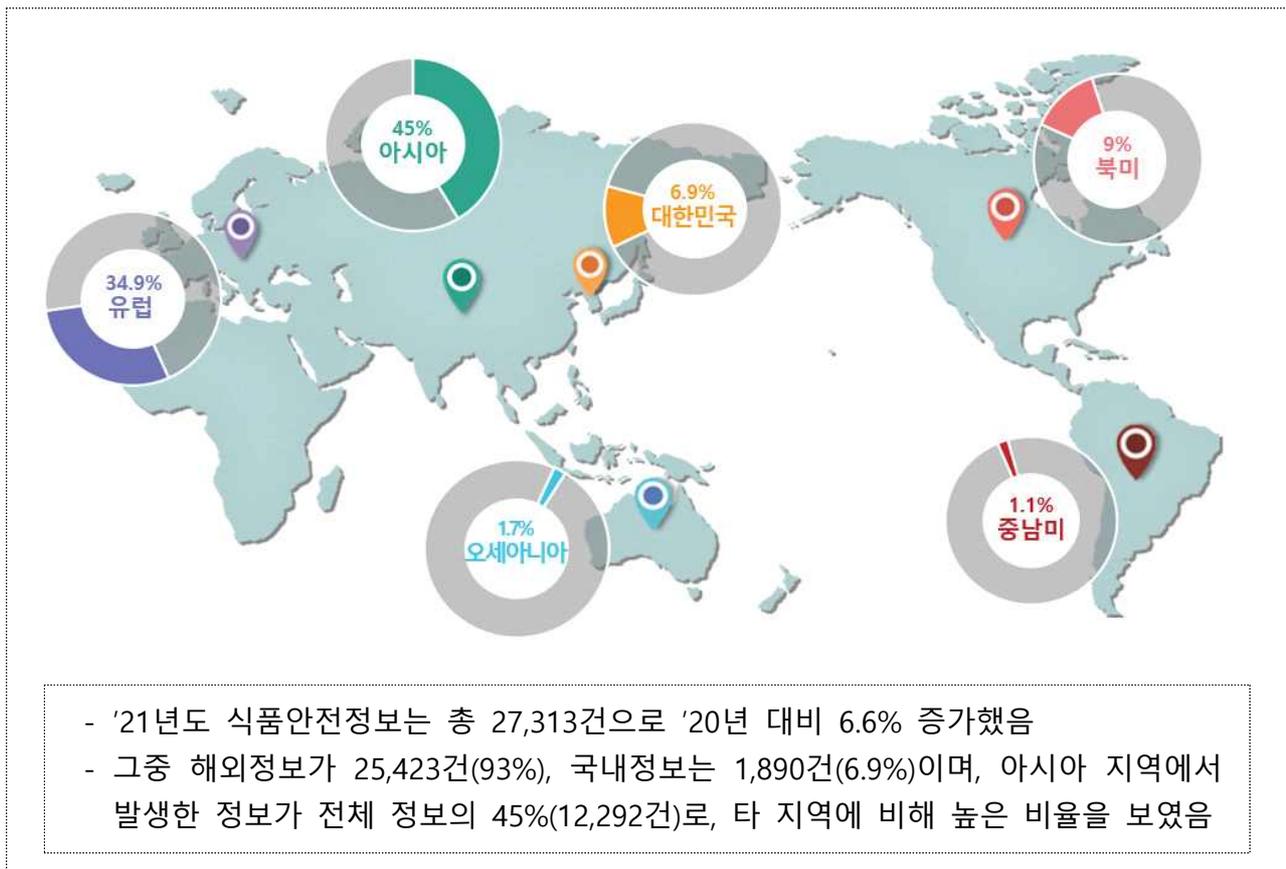
- 그림 1-1.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지역별 현황
- 그림 1-2.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정보구분별 현황
- 그림 1-3.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원인요소별(대분류) 현황
- 그림 2-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월별 현황
- 그림 2-2.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 현황 (상위 10개)
- 그림 2-3.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별 현황 (상위 10개)
- 그림 2-4.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원인요소별 현황
- 그림 2-5.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대분류)-원인요소(대분류) 현황 (상위 10개)
- 그림 3-1. '19~'21년 잔류농약 성분별 3개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현황 (에틸렌옥사이드를 제외한 상위 20개)
- 그림 3-2. '19~'21년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해외 위해식품정보 현황

요약

< 연도별 정보수집 현황 >



< 정보출처별(지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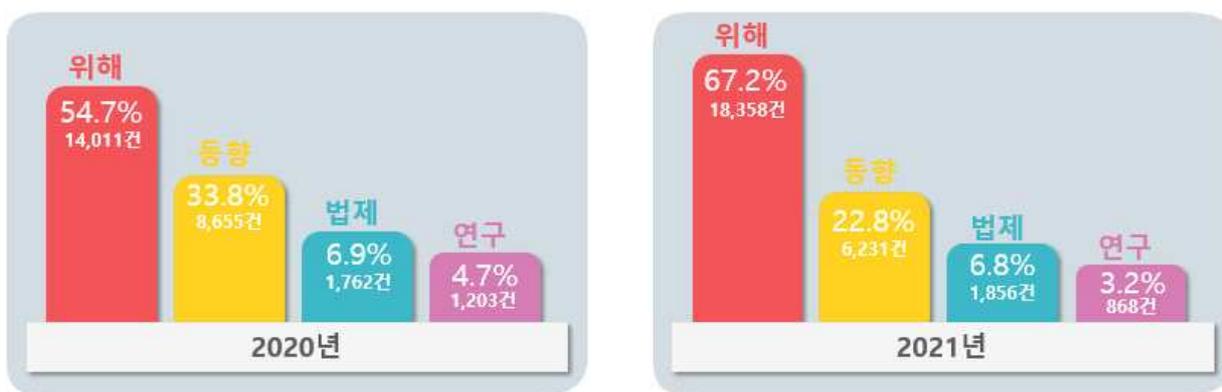


< 정보출처별(국가) 현황 (국내 제외) >



- '21년도 국가별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순으로 나타남
- 정보수집 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국은 '20년과 정보수집 건수 비율(22.6%)이 동일함

< 정보구분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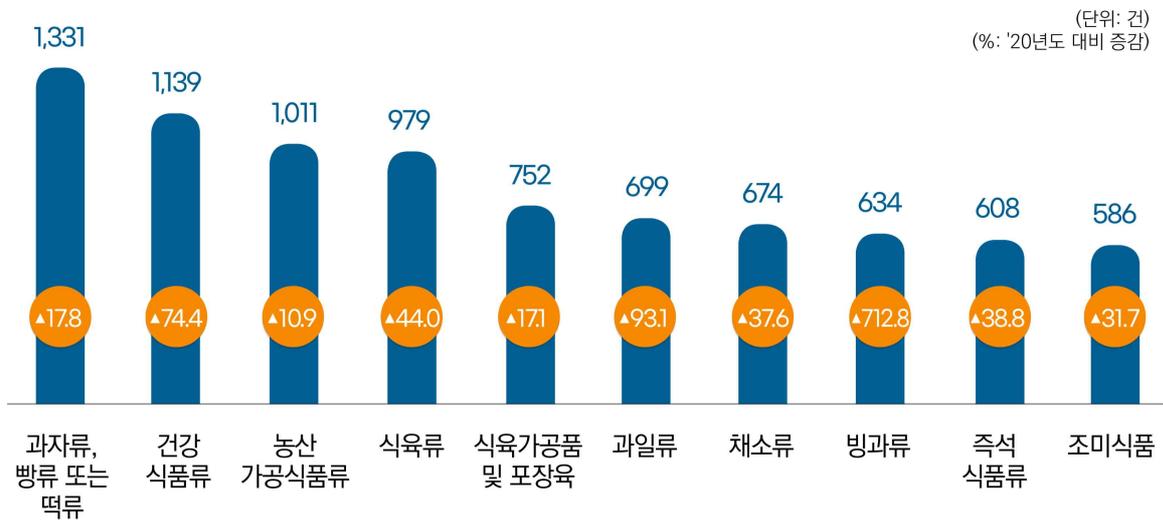


- '21년도 식품안전정보를 정보구분별로 보면, 위해식품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글로벌동향정보, 법제도정보, 연구평가정보 순으로 나타남

위해식품정보	특정 식품의 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 정보(예: 회수, 폐기 등)
법제도정보	식약처 등 국내외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법령, 제도, 기준규격 등 제개정 정보
연구평가정보	학계, 정부 등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안전성·위해성 평가 결과 정보
글로벌동향정보	식품안전 관련 주제의 동향정보 또는 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의견, 동향 유형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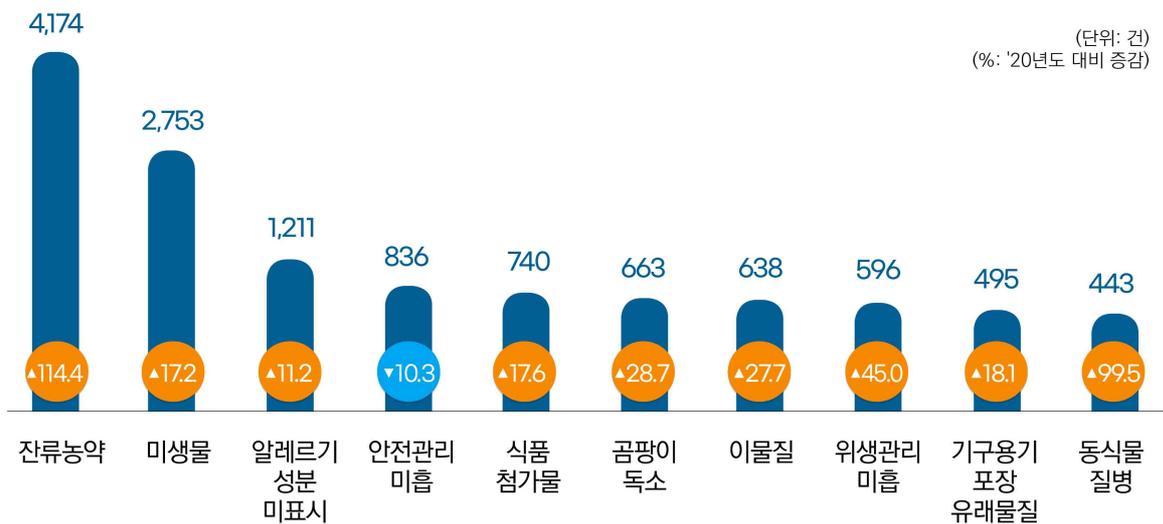
☞ 해외 위해식품정보(18,269건) 중 해외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고 조치유형과 기본항목(생산국(원산지 또는 제조국), 식품유형, 원인요소)을 갖춘 정보를 선별(14,429건)한 이후 기본항목 구성요소가 복수인 경우 이를 다시 개별 건으로 나누어 최종 분석(14,653건)

〈 식품유형별(중분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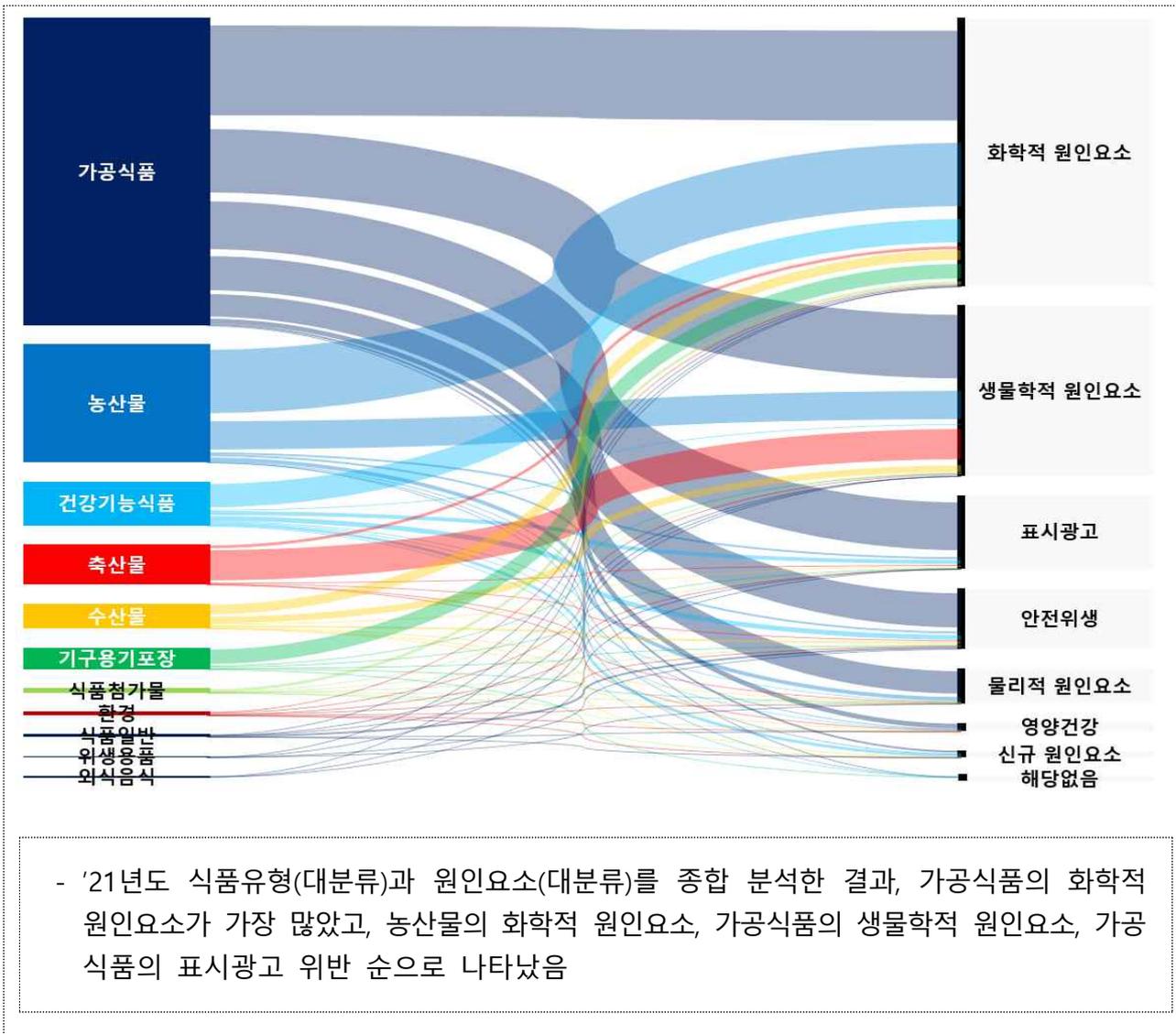
- '21년도 위해식품정보를 식품유형별(중분류)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가 1위였으며, 그다음은 건강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순으로 나타났음

〈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 〉



- '21년도 위해식품정보를 원인요소별(중분류)로 살펴보면, 잔류농약 관련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생물,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음

< 식품유형별(대분류) 원인요소(대분류) 현황¹⁾ >



1) Sankey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 너비가 흐름(Flow)의 양을 보여줌

< 생산국별 식품유형 및 원인요소 현황 >



- '21년도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과 원인요소(중분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프랑스 '빙과류의 잔류농약'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가공식품 일반의 안전관리 미흡', 프랑스 '건강식품류의 잔류농약' 순으로 나타났음

제1장 개요

목적 및 근거

1. 목적

- 식품안전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 식품안전정보원이 2021년에 수집한 2만 7천여 건의 식품안전정보를 통계화 및 동향 분석하여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기여
- 위해식품정보 분석 결과에 기초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지원
 - 해외 위해식품정보를 식품유형, 원인요소, 생산국별로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수입식품 중점 감시·관리 대상 선정, 산업체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수출국 동향과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정부의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산업체의 식품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학계 연구자료 활용 등 정보의 가치 재생산에 기여

2. 관련 규정 및 지침

- 「식품위생법」 제67조 및 제68조
-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
- 「식품안전정보 운영·관리 지침」

1. 정보의 수집

-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관리 매뉴얼」에 따른 지정 정보출처와 검색어로 수집
 - 언 어 권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 정보출처 : 29개국 200개 사이트
 - 검 색 어 : 한국어 기준 식품 등 40개, 위생용품 14개를 9개 언어권으로 전환하여 검색
 - 수집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수집건수 : 총 27,313건
 - 운영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2. 정보의 분류

- 정보구분
 - 정보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4가지로 구분

< 정보 구분 >

- 위해식품정보 : 특정 식품의 회수, 판매금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 정보 (예: 회수, 폐기 등)
- 법 제 도 정 보 : 식약처 등 국내외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법령, 제도, 기준규격 등 제·개정 정보
- 연구평가정보 : 학계, 정부 등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안전성·위해성 평가 결과 정보
- 글로벌동향정보 : 식품안전 관련 주제의 동향정보 또는 법령 제·개정과 관련한 의견, 동향 유형의 정보

□ 식품유형²⁾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의 식품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가공식품, 건강식품류³⁾ 등 13가지 대분류로 분류하고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

< 식품유형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⁴⁾
식품일반	식품일반
가공식품	가공식품 일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기타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당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병과류, 수산가공식품류, 식용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 음료류, 장류, 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조미식품, 주류, 즉석식품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건강식품류	건강기능식품 일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 미생물류, 비타민 및 무기질(미네랄), 식이섬유,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지방산 및 지질류, 터핀류, 페놀류, 기타
농산물	농산물 일반, 견과, 곡류, 과일류, 버섯류, 서류, 종실류, 차, 채소류, 콩류, 향신료, 호프, 기타 식물류
축산물	축산물 일반, 사료, 식육류, 알류, 우유류, 기타
수산물	수산물 일반, 갑각류, 극피 또는 척색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 심해성 어류, 어란류, 어류, 연체류, 조류, 패류, 기타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일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류, 화학적 합성품, 기타
외식음식	외식일반, 식품접객업소, 자판기, 집단급식, 기타
환경	환경일반, 농축산용수, 생수(먹는샘물), 수돗물, 유통, 지하수, 토양·대기, 기타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 일반, 고무제, 금속제, 목재류, 셀로판제,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합성수지제, 기타
위생용품 ⁵⁾	위생용품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기타

2)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에 따른 신규 식품유형 분류체계는 '19년도부터 반영

3) 본 보고서는 불법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 표방제품을 포함하여 '건강식품류'라는 용어를 사용

4) 소분류 생략

5) 「위생용품 관리법」(2018.04.19. 시행)에 따른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는 개별 분류(위생용품) 항목 마련(위생용품 19개 유형 중 일회용 컵 등 14개 유형에 한함)

□ 원인요소

- 식품공전의 규격(시험항목), 정보발생 유형 등을 참고하여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원인요소, 안전위생, 영양건강, 표시광고 등 9가지 대분류로 분류하고 중분류, 소분류로 세분화

< 원인요소 분류체계 >

대분류	중분류 ⁶⁾
화학적 원인요소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기타
물리적 원인요소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기타
영양건강	건강, 영양, 영양성분, 기타
안전위생	안전, 위생, 기타 * 안전: 분석(검사)보고서 미비, 이력추적 불가, 미신고/허가 영업장, 미등록 및 미허가 제품 등 취급 전반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식품 * 위생: 비식용원료 혼입, 위생지표 위반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 포장, 취급된 식품
표시광고	GMO, 광고(허위, 과대 등),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알레르기성분, 영양성분, 원료 성분·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명, 기타
신규 원인요소	GMO(LMO), 기능성소재, 나노, 멜라민, 방사능, 복제동물, 신규식품, 기타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기타

6) 소분류 생략

3. 정보의 분석

□ 일반 동향 분석

- '21년도 수집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27,313건을 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주요 항목별로 비교분석

□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분석

-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18,269건) 중 정보출처 선별기준에 부합하고 조치유형과 기본항목을 갖춘 정보를 선별(14,429건)한 이후 기본항목 구성요소가 복수인 경우 이를 다시 개별 건으로 나누어 총 14,653건을 분석

< 선 별 기 준 >

- 정 보 출 처 : 해외 주요 식품안전 관리 기관이 조치를 위해 발표한 정보 및 식품기업 또는 언론사의 조치 보도자료
- 조 치 유 형 : 위해도 또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수입 및 유통 부적합, 회수,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
- 기 본 항 목 : 식품유형, 원인요소, 생산국(또는 원산지) 항목이 모두 명시된 정보를 위해식품정보의 기본항목으로 간주

2021년 식품안전정보 분석체계



제2장 식품안전정보

일반 동향

식품안전정보 일반 동향

1. 개요

□ '21년도 식품안전정보는 총 27,313건으로 '20년 수집 건수(25,631건) 대비 6.6% 증가함

2. 지역별 현황

□ 2021년 식품안전정보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정보가 전체의 45.0%(12,292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유럽, 북미 순이었음

○ 전년 대비 아시아 정보는 10.7%, 유럽 정보는 38.5% 증가하였음



그림 1-1.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지역별 현황

3. 국가별 현황

- '21년 국가별 정보 건수는 중국, 유럽연합, 일본 순으로 전년도와 순위가 동일함
- '21년 정보 건수 기준 상위 10개국의 정보량은 23,106건으로, '21년 해외 식품안전정보의 84.6%에 해당하며, '20년도에 비해 10.4% 증가하였음
- '21년도 정보수집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년도 대비 14.3% 증가하였고, '20년 정보 수집 건수가 8위였던 프랑스는 279.8%(▲1,872건) 증가하여 순위가 4단계 상승하였음

표 1-1. '19~'21년 식품안전정보 수집 현황 (상위 10개)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건수	비율*	국가	건수	비율	증감률	국가	건수	비율	증감률
1	유럽연합	4,535	18.1%	중국	5,018	19.6%	▲12.9%	중국	5,734	21.0%	▲14.3%
2	중국	4,446	17.7%	유럽연합	3,938	15.4%	▽13.2%	유럽연합	4,816	17.6%	▲22.3%
3	대한민국	2,896	11.5%	대한민국	3,396	13.2%	▲17.3%	일본	2,968	10.9%	▲31.6%
4	일본	2,818	11.2%	미국	2,335	9.1%	▽9.9%	프랑스	2,541	9.3%	▲279.8%
5	미국	2,593	10.3%	일본	2,255	8.8%	▽20.0%	미국	2,000	7.3%	▽14.3%
6	대만	1,530	6.1%	대만	1,405	5.5%	▽8.2%	대한민국	1,890	6.9%	▽44.3%
7	캐나다	735	2.9%	필리핀	707	2.8%	▲150.7%	대만	1,367	5.0%	▽2.7%
8	독일	708	2.8%	프랑스	669	2.6%	▲11.1%	벨기에	644	2.4%	▲30.1%
9	프랑스	602	2.4%	독일	606	2.4%	▽14.4%	필리핀	629	2.3%	▽11.0%
10	홍콩	530	2.1%	홍콩	596	2.3%	▲12.5%	독일	517	1.9%	▽14.7%
	합계	21,393	85.3%	합계	20,925	81.6%	▽2.2%	합계	23,106	84.6%	▲10.4%

* 비율 : 해당연도 수집 정보 건수 중 비율

※ 2021년 11 ~ 20위 : 홍콩, 태국, 영국, 호주, 국제기구, 베트남, 싱가포르, 아일랜드, 스페인, 인도

※ 필리핀(9위) 및 인도(20위) 정보는 정보수집 9개 언어로 확인 가능한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언론 정보에 한하여 수집함

4. 정보구분별 현황

- '21년 식품안전정보 총 27,313건을 정보구분별로 보면 '위해식품정보'가 67.2%(18,358건)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대비 12.6%p 증가하였음
- 글로벌동향정보는 22.8%로 '20년 대비 11.0%p 감소하였으며, 법제도정보와 연구평가 정보는 각각 6.8%, 3.2%로 0.1%p, 1.5%p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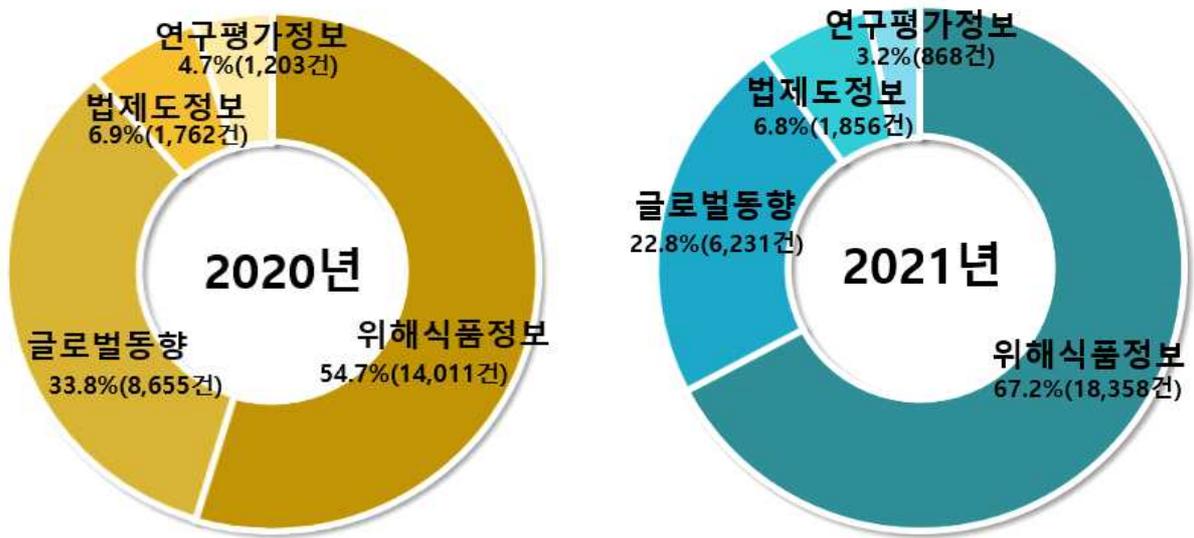


그림 1-2.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 정보구분별 현황

5. 식품유형별 현황

- '21년도 식품안전정보를 식품유형별(대분류)로 보면, '가공식품' 정보가 전체의 45.3%(12,367건)로 가장 많았음

표 1-2.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식품유형별(대분류) 현황

순위	2020년			2021년			증감률
	식품구분	건수	비율*	식품구분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9,812	38.3%	가공식품	12,370	45.3%	▲26.1%
2	식품일반**	3,698	14.4%	농산물	4,101	15.0%	▲12.0%
3	농산물	3,663	14.3%	축산물	2,824	10.3%	▽11.1%
4	축산물	3,176	12.4%	식품일반	2,464	9.0%	▽33.4%
5	수산물	1,314	5.1%	건강식품류	1,455	5.3%	▲37.0%
6	건강식품류	1,062	4.1%	수산물	1,330	4.9%	▲1.2%
7	외식음식	1,058	4.1%	환경	1,133	4.1%	▲39.9%
8	환경	810	3.2%	기구용기포장	688	2.5%	▲13.3%
9	기구용기포장	607	2.4%	외식음식	492	1.8%	▽53.5%
10	식품첨가물	261	1.0%	식품첨가물	310	1.1%	▲18.8%
11	위생용품	142	0.6%	위생용품	139	0.5%	▽2.1%
12	해당없음	22	0.1%	해당없음	6	0.0%	▽72.7%
13	기타	6	0.0%	기타	1	0.0%	▽83.3%
	합계	25,631	100.0%	합계	27,313	100.0%	▲6.6%

<'21년도 식품안전정보 식품유형별(중분류) 현황은 <붙임 1> 참조>

* 비율 : 해당연도 수집 정보 건수 중 비율

** 식품일반 : 특정 유형의 식품이 아닌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정보

- 식품유형별(중분류)로는 특정 유형의 식품이 아닌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정보(식품일반)가 9.0%(2,464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식육류 8.2%(2,246건),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7.6%(2,085건) 순으로 나타남

6. 원인요소별 현황

- '21년도 식품안전정보를 원인요소별(대분류)로 보면, 화학적 원인요소와 관련한 정보가 32.9%(8,998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생물학적 원인요소 27.4%(7,474건), 안전위생 16.8%(4,589건), 표시광고 9.6%(2,630건)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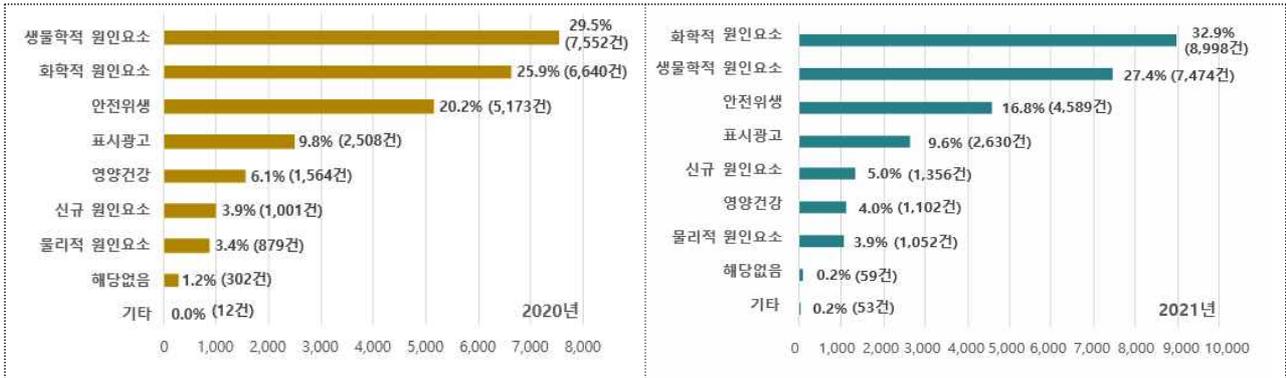


그림 1-3.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원인요소별(대분류) 현황

- 화학적 원인요소와 신규 원인요소 관련 정보는 '20년 대비 각각 35.5%(▲2,358건), 35.5%(▲355건) 증가하였으나, 생물학적 원인요소와 안전위생은 각각 1.0%(▽78건), 11.3%(▽584건) 감소하였음
- 원인요소별(중분류)로는 전년도 3위였던 잔류농약과 관련된 정보가 18.2%(4,979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미생물 16.3%(4,449건), 안전관리 8.5%(2,320건), 위생관리 8.3%(2,266건) 순으로 나타났음

표 1-3. '20년 및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

순위	2020년			2021년			증감률
	원인요소	건수	비율*	원인요소	건수	비율	
1	미생물	4,054	15.8%	잔류농약	4,979	18.2%	▲87.1%
2	안전관리	3,001	11.7%	미생물	4,449	16.3%	▲9.7%
3	잔류농약	2,661	10.4%	안전	2,320	8.5%	▽22.7%
4	위생관리	2,170	8.5%	위생	2,266	8.3%	▲4.4%
5	동식물질병	1,673	6.5%	식품첨가물	1,683	6.2%	▲8.8%
	합계	13,559	52.9%	합계	15,697	57.5%	▲15.8%

<'21년도 식품안전정보 원인별(중분류) 현황은 <붙임 2> 참조>

* 비율 : 해당연도 수집 정보 건수 중 비율

7.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

- '21년도 해외 식품안전정보 중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⁷⁾와 관련된 정보는 총 2,293건으로, 전년(839건) 대비 173.3%(▲1,454건) 증가하였음
- '20년 9월부터 '21년 12월 기간 중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정보의 정보구분별 현황을 보면, 위해식품정보(3,091건)가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동향정보(34건), 법제도정보(4건), 연구평가정보(3건) 순으로 나타났음
- 식품유형으로 보면, 빙과류(526건, 16.8%),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505건, 16.1%), 종실류(500건, 16.0%), 건강식품류(407건, 13.0%), 농산가공식품류(234건, 7.5%) 순으로 나타났음
 - *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에틸렌옥사이드 세부 내용은 제4장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요소별 현황 중 1.잔류농약 참조
 - '20년 9월, 인도산 참깨 및 참깨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정보를 시작으로 유럽 연합은 인도산 참깨에 관한 규정 강화를 발표하였으며, '21년에는 다양한 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면서 관련 안전성 평가, 일부 수입식품에 대한 한시적 검사 강화 등의 정보가 발생하였음

표 1-4.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정보의 정보구분별 현황

정보구분	정보 예시(일부 발췌)	2020년	2021년	총 건수
		건수	건수(증감)	
위해식품정보	· ('20년)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에틸렌옥사이드가 과량 검출된 참깨 함유로 과자 회수 · ('21년) 벨기에, 에틸렌옥사이드 기준 초과 검출된 원료 함유로 아이스크림 3종 회수 · ('21년) 프랑스,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된 원료 함유로 식이보충제 4종 회수	834	2,257 (▲1,423)	3,091
글로벌동향정보	· ('20년) 유럽연합, 인도산 참깨에 관한 규정 강화하기로 결정 · ('21년)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된 아이스크림 회수 관련 공지 게시 · ('21년) EU집행위원회, 에틸렌옥사이드 오염된 캐롭검 함유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모두 철수되어야	4	30 (▲26)	34
법제도정보	· ('21년) 유럽연합, 특정 수입 상품에 대하여 공식 검사 일시적 강화 및 긴급 조치에 대한 규정(EU) 2019/1793 수정 고시	0	4 (▲4)	4
연구평가정보	· ('21년) 독일 CVUA, 가공즉석식품인 라면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평가 견해 게재	1	2 (▲1)	3
합계		839	2,293 (▲1,454)	3,132

7)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2-CE)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며,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할 수 있음. 에틸렌옥사이드의 사용 예는 다음과 같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21.08.17))

- ① 일부 국가에서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
- ②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으로 많이 이용
- ③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

8. 코로나19 관련 해외 식품안전정보 동향⁸⁾

□ '21년도 해외 식품안전정보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는 총 354건으로, '20년 777건 대비 54.4% 감소하였음

○ 식품안전 당국의 '식품·포장재 등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 관련 정보(258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27건), 식품 취급 시설 등에서의 위생안전 관리 지침(21건)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함

* 기타(아래 표의 6개 주제로 분류되지 않는 그 외 정보) 34건 제외

○ '21년 '식품·포장재 등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 관련 정보(건)는 중국(235건, 91.1%)에서 가장 많이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이 해관총서(182건, 77.4%)였음

* 검출 및 조치 정보: 1분기 79건 ⇨ 2분기 47건 ⇨ 3분기 84건 ⇨ 4분기 48건

표 1-5. '20년 및 '21년 코로나19 관련 해외 정보의 주제별 현황

정보구분	정보 예시(일부 발췌)	2020년		2021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증감	
식품·포장재 등 검사 및 그에 따른 조치 등	· 중국 해관총서, 인도 냉동 흰다리새우 생산기업 1곳에 대해 긴급 예방성 조치 실시 · 중국 해관총서, 콜드체인 수입식품 샘플 149만 건 중 79건에서 양성 · 중국 해관총서, 러시아 가공어선 1척 및 어획운반어선 1척에 대해 긴급 예방성 조치 취해	149	19.2%	258	72.9%	▲73.2%
식품안전 관리·감독 강화	· 중국, 수입 고위험 비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 검사와 예방성 소독 업무 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157	20.2%	27	7.6%	▽82.8%
식품 위생안전 관련 지침 등	· 호주 시드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식료품점 및 식품점객업소의 직원 마스크 의무 착용 실시	112	14.4%	21	5.9%	▽81.3%
식품·포장재 등 매개 인체 감염 가능 여부	· 미국 농무부&식품의약품청, 식품이나 식품 포장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역학 및 과학적 정보 강조	80	10.3%	10	2.8%	▽87.5%
탄력적 제도 운용	· 대만 환경보호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식기 사용 규제 일시적 완화	20	2.6%	4	1.1%	▽80.0%
예방·치료 관련 허위 광고 등 주의	· 대만 식약서, 허위 정보 정정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는 코로나 예방 효과가 없음을 설명	28	3.6%	0	0.0%	▽100.0%
기타	· 영국 식품기준청,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기간 시민들의 식품 경험 보고서 발표	231	29.7%	34	9.6%	▽85.3%
합계		777	100%	354	100%	▽54.4%

8) 코로나19 감염증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해외 각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불식과 식품 관련 사업장 등에서의 위생지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함

제3장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해외 위해식품정보 동향

1. 개요

□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는 총 14,653건⁹⁾으로 '20년(10,894건) 대비 34.5% 증가함

2. 기간별 현황

□ '21년도 월평균 해외 위해식품정보는 1,221건으로 정보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7월이며, 가장 적었던 기간은 2월임

○ '21년 월평균 수집 건수는 이전 3개년 월평균 건수 905건에 비해 34.9% 증가함

* 연도별 월평균 건수: ('18년) 853건 ⇨ ('19년) 955건 ⇨ ('20년) 908건



그림 2-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월별 현황

9) '제1장 개요'의 'II. 정보수집.분석체계' 중 '3. 정보의 분석' 참조

3. 생산국¹⁰⁾ 현황

□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은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순으로, 상위 10개국¹¹⁾이 63.1%를 차지함

* ('19년) 중국 > 미국 > 프랑스 > 일본 > 캐나다

* ('20년) 중국 > 미국 > 프랑스 > 필리핀 >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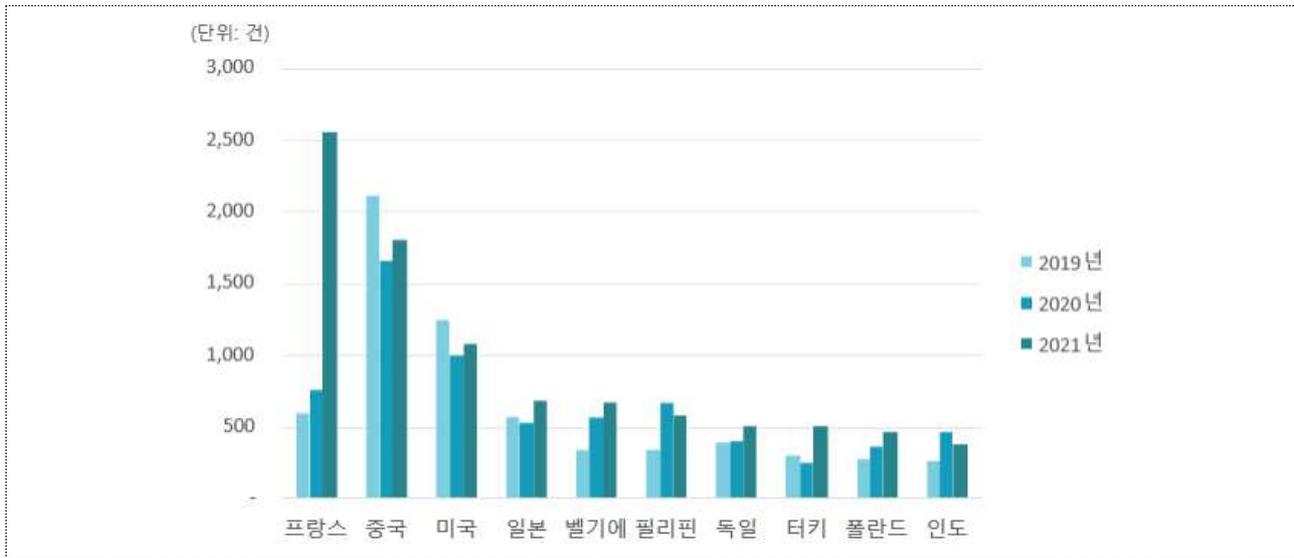


그림 2-2.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 현황 (상위 10개)

○ 상위 10개국 중 '20년 대비 해외 위해식품정보 건수 증가율이 큰 국가는 프랑스(▲1,799건, ▲236.7%)와 터키(▲255건, ▲102.8%)였으며, 2013년 이후¹¹⁾ 처음으로 프랑스가 1위를 차지했음

10) 생산국은 위해식품정보에 공개된 원산지를 지칭하며, 내수제품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미공개 정보는 정보 발표국을 생산국으로 분류

11) 식품안전정보원은 2013년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를 발표

○ 상위 10개국 중 전년 대비 건수 감소율이 큰 국가는 인도(▽89건, ▽19.1%)와 필리핀(▽90건, ▽13.5%)이었음

- '19~'21년 인도산 정보*의 67.9%(749건)는 유럽연합 RASFF에서 발표되었으며, '19~'21년 필리핀산 정보**12)의 91.7%(1,451건)는 필리핀에서 발표되었음

* ('19년) 120건(46.5%) ⇨ ('20년) 371건(79.4%) ⇨ ('21년) 258건(68.3%)

** ('19년) 282건(82.9%) ⇨ ('20년) 622건(93.4%) ⇨ ('21년) 547건(95.0%)

표 2-2.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생산국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760	7.0%	2,559	17.5%	▲236.7%	▲2
2	중국	1,651	15.2%	1,809	12.3%	▲9.6%	▽1
3	미국	995	9.1%	1,080	7.4%	▲8.5%	▽1
4	일본	530	4.9%	688	4.7%	▲29.8%	-
5	벨기에	568	5.2%	677	4.6%	▲19.2%	▲5
6	필리핀	666	6.1%	576	3.9%	▽13.5%	▲3
7	독일	405	3.7%	512	3.5%	▲26.4%	▽1
8	터키	248	2.3%	503	3.4%	▲102.8%	▲3
9	폴란드	367	3.4%	465	3.2%	▲26.7%	▲5
10	인도	467	4.3%	378	2.6%	▽19.1%	▲5
10개국 합계		6,657	61.1%	9,247	63.1%	▲38.9%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현황은 <붙임6> 참조>

12)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식품 및 식이보충제 주의 경고 정보는 원인요소가 섭취 안전이 우려되는 위해 요소가 아닌 미등록 관련 정보

○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 관련 제품의 생산국 2위와 3위인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국가 현황(건수 기준)의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음¹³⁾

표 2-3.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				'20년도 수입신고 부적합			
순위	국가명	건수	비율	순위	국가명	건수	비율
1	프랑스	2,559	17.5%	1	중국	358	33.1%
2	중국	1,809	12.3%	2	미국	106	9.8%
3	미국	1,080	7.4%	3	베트남	85	7.8%
4	일본	688	4.7%	4	이탈리아	57	5.3%
5	벨기에	677	4.6%	5	인도	43	4.0%
6	필리핀	576	3.9%	6	태국	42	3.9%
7	독일	512	3.5%	7	일본	32	3.0%
8	터키	503	3.4%	8	캐나다	31	2.9%
9	폴란드	465	3.2%	9	스페인	27	2.5%
10	인도	378	2.6%	10	대만	24	2.2%
10개국 합계		9,247	63.1%	10개국 합계		805	74.3%
전체 합계		14,653	100.0%	전체 합계		1,083	100.0%

13) 본 분석 내용은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을 감안하지 않음

○ 프랑스(1위)가 생산국인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과 원인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¹⁴⁾

- (식품유형 : 대분류-중분류) 가공식품 중 병과류(447건, 17.5%, ▲44,600.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가공식품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316건, 12.3%, ▲78.5%), 가공식품 중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301건, 11.8%, ▲189.4%), 건강식품류(285건, 11.1%, ▲14,150.0%)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77건, 23.3%)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04건, 13.7%) > 패류(69건, 9.1%) 등

표 2-4. '20년 및 '21년 프랑스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병과류	1	0.1%	447	17.5%	▲44,600.0%	▲18
2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77	23.3%	316	12.3%	▲78.5%	▽1
3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04	13.7%	301	11.8%	▲189.4%	▽1
4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2	0.3%	285	11.1%	▲14,150.0%	▲14
5	가공식품	유가공품	64	8.4%	248	9.7%	▲287.5%	▽1
6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38	5.0%	185	7.2%	▲386.8%	▲1
7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62	8.2%	141	5.5%	▲127.4%	▽2
8	가공식품	조미식품	25	3.3%	98	3.8%	▲292.0%	▲1
9	축산물	식육류	40	5.3%	84	3.3%	▲110.0%	▽3
10	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류	24	3.2%	66	2.6%	▲175.0%	-
10개 합계			537	70.7%	2,171	84.8%	▲304.3%	
전체 합계			760	100.0%	2,559	100.0%	▲236.7%	

14)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붙임 7> 및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붙임8> 참조

- (원인요소 : 대분류-중분류) 화학적 원인요소 중 잔류농약(1,519건, 59.4%, ▲46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545건, 21.3%, ▲117.1%)과 물리적 원인요소 중 이물질(101건, 3.9%, ▲62.9%)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잔류농약(269건, 35.4%) > 미생물(251건, 33.0%) > 이물질(62건, 8.2%) 등

표 2-5. '20년 및 '21년 프랑스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269	35.4%	1,519	59.4%	▲464.7%	-
2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251	33.0%	545	21.3%	▲117.1%	-
3	물리적 원인요소	이물질	62	8.2%	101	3.9%	▲62.9%	-
4	표시광고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44	5.8%	92	3.6%	▲109.1%	-
5	화학적 원인요소	식품첨가물	9	1.2%	45	1.8%	▲400.0%	▲4
6	안전위생	위생관리	12	1.6%	39	1.5%	▲225.0%	▲2
7	표시광고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18	2.4%	32	1.3%	▲77.8%	-
8	생물학적 원인요소	동식물질병	9	1.2%	31	1.2%	▲244.4%	▲1
9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7	0.9%	26	1.0%	▲271.4%	▲2
10	물리적 원인요소	성상	3	0.4%	25	1.0%	▲733.3%	▲4
10개 합계			684	90.0%	2,455	95.9%	▲258.9%	
전체 합계			760	100.0%	2,559	100.0%	▲236.7%	

○ 중국(2위)이 생산국인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과 원인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유형 : 대분류-중분류) 기구용기포장(316건, 17.5%, ▲22.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가공식품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237건, 13.1%, ▲23.4%),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187건, 10.3%, ▼19.0%)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기구용기포장(259건, 15.7%) > 농산가공식품류(231건, 14.0%)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92건, 11.6%) 등

표 2-6. '20년 및 '21년 중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	259	15.7%	316	17.5%	▲22.0%	-
2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92	11.6%	237	13.1%	▲23.4%	▲1
3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231	14.0%	187	10.3%	▼19.0%	▼1
4	농산물	채소류	86	5.2%	116	6.4%	▲34.9%	▲1
5	가공식품	주류	75	4.5%	92	5.1%	▲22.7%	▲1
6	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류	53	3.2%	72	4.0%	▲35.8%	▲2
7	농산물	견과	17	1.0%	56	3.1%	▲229.4%	▲14
8	환경	생수(먹는샘물)	104	6.3%	56	3.1%	▼46.2%	▼4
9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68	4.1%	53	2.9%	▼22.1%	▼2
10	농산물	과일류	17	1.0%	52	2.9%	▲205.9%	▲11
10개 합계			1,102	66.7%	1,237	68.4%	▲12.3%	
전체 합계			1,651	100.0%	1,809	100.0%	▲9.6%	

- (원인요소 : 대분류-중분류)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416건, 23.0%, ▽8.4%)이 가장 많았고, 화학적 원인요소 중 잔류농약(279건, 15.4%, ▲73.3%),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246건, 13.6%, ▲8.8%)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미생물(454건, 27.5%) > 식품첨가물(253건, 15.3%) >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226건, 13.7%) 등

표 2-7. '20년 및 '21년 중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454	27.5%	416	23.0%	▽8.4%	-
2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161	9.8%	279	15.4%	▲73.3%	▲2
3	화학적 원인요소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	226	13.7%	246	13.6%	▲8.8%	-
4	안전위생	위생관리	156	9.4%	240	13.3%	▲53.8%	▲1
5	화학적 원인요소	식품첨가물	253	15.3%	200	11.1%	▽20.9%	▽3
6	영양건강	영양성분	83	5.0%	100	5.5%	▲20.5%	-
7	화학적 원인요소	동물용의약품	52	3.1%	54	3.0%	▲3.8%	▲1
8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42	2.5%	53	2.9%	▲26.2%	▲1
9	화학적 원인요소	중금속	58	3.5%	44	2.4%	▽24.1%	▽2
10	안전위생	안전관리	41	2.5%	35	1.9%	▽14.6%	-
10개 합계			1,526	92.4%	1,667	92.2%	▲9.2%	
전체 합계			1,651	100.0%	1,809	100.0%	▲9.6%	

○ 미국(3위)이 생산국인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과 원인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유형 : 대분류-중분류) 건강식품류(161건, 14.9%, ▲5.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가공식품류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47건, 13.6%, ▲40.0%), 농산가공식품류(108건, 10.0%, ▲3.8%)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건강식품류(153건, 15.4%)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05건, 10.6%) > 농산가공식품류(104건, 10.5%) 등

표 2-8. '20년 및 '21년 미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153	15.4%	161	14.9%	▲5.2%	-
2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05	10.6%	147	13.6%	▲40.0%	-
3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104	10.5%	108	10.0%	▲3.8%	-
4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103	10.4%	90	8.3%	▽12.6%	-
5	농산물	견과	74	7.4%	71	6.6%	▽4.1%	▲1
6	가공식품	조미식품	75	7.5%	63	5.8%	▽16.0%	▽1
7	농산물	채소류	39	3.9%	45	4.2%	▲15.4%	-
8	가공식품	음료류	33	3.3%	43	4.0%	▲30.3%	-
9	농산물	과일류	33	3.3%	42	3.9%	▲27.3%	▽1
10	가공식품	유가공품	16	1.6%	39	3.6%	▲143.8%	▲2
10개 합계			735	73.9%	809	74.9%	▲10.1%	
전체 합계			995	100.0%	1,080	100.0%	▲8.5%	

- (원인요소 : 대분류-중분류) 표시광고 위반 중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320건, 29.6%, ▲26.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216건, 20.0%, ▲11.9%), 물리적 원인요소 중 이물질(94건, 8.7%, ▲44.6%) 순으로 이어졌음

* ('20년)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254건, 25.5%) > 미생물(193건, 19.4%) > 곰팡이독소 (102건, 10.3%) 등

표 2-9. '20년 및 '21년 미국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표시광고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254	25.5%	320	29.6%	▲26.0%	-
2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193	19.4%	216	20.0%	▲11.9%	-
3	물리적 원인요소	이물질	65	6.5%	94	8.7%	▲44.6%	▲2
4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102	10.3%	85	7.9%	▽16.7%	▽1
5	화학적 원인요소	의약품성분	84	8.4%	61	5.6%	▽27.4%	▽1
6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49	4.9%	45	4.2%	▽8.2%	-
7	안전위생	위생관리	14	1.4%	41	3.8%	▲192.9%	▲6
8	물리적 원인요소	성상	25	2.5%	35	3.2%	▲40.0%	▲1
9	안전위생	안전관리	46	4.6%	32	3.0%	▽30.4%	▽2
10	화학적 원인요소	중금속	6	0.6%	22	2.0%	▲266.7%	▲7
10개 합계			838	84.2%	951	88.1%	▲13.5%	
전체 합계			995	100.0%	1,080	100.0%	▲8.5%	

○ 일본(4위)이 생산국인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과 원인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유형 : 대분류-중분류) 가공식품 중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05건, 15.3%, ▲20.7%)가 가장 많았고, 농산물 중 과일류(61건, 8.9%, ▲8.9%), 가공식품 중 음료류(61건, 8.9%, ▲125.9%)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87건, 16.4%) > 과일류(56건, 10.6%) > 수산가공식품류 (31건, 5.8%) 등

표 2-10. '20년 및 '21년 일본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87	16.4%	105	15.3%	▲20.7%	-
2	농산물	과일류	56	10.6%	61	8.9%	▲8.9%	-
3	가공식품	음료류	27	5.1%	61	8.9%	▲125.9%	▲3
4	농산물	채소류	23	4.3%	60	8.7%	▲160.9%	▲3
5	가공식품	조미식품	23	4.3%	47	6.8%	▲104.3%	▲2
6	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류	31	5.8%	42	6.1%	▲35.5%	▽2
7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28	5.3%	33	4.8%	▲17.9%	▽2
8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28	5.3%	28	4.1%	-	▽3
9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23	4.3%	25	3.6%	▲8.7%	▽2
10	가공식품	면류	7	1.3%	22	3.2%	▲214.3%	▲4
10개 합계			333	62.8%	484	70.3%	▲45.3%	
전체 합계			530	100.0%	688	100.0%	▲29.8%	

- (원인요소 : 대분류-중분류) 화학적 원인요소 중 잔류농약(160건, 23.3%, ▲3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물리적 원인요소 중 이물질(95건, 13.8%, ▲35.7%), 표시광고 위반 중 기간(77건, 11.2%, ▲71.1%) 순으로 이어졌음

* ('20년) 잔류농약(115건, 21.7%) > 이물질(70건, 13.2%) >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68건, 12.8%) 등

표 2-11. '20년 및 '21년 일본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115	21.7%	160	23.3%	▲39.1%	-
2	물리적 원인요소	이물질	70	13.2%	95	13.8%	▲35.7%	-
3	표시광고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45	8.5%	77	11.2%	▲71.1%	▲1
4	표시광고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68	12.8%	75	10.9%	▲10.3%	▽1
5	화학적 원인요소	식품첨가물	16	3.0%	51	7.4%	▲218.8%	▲6
6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22	4.2%	38	5.5%	▲72.7%	▲2
7	물리적 원인요소	성상	27	5.1%	36	5.2%	▲33.3%	▽2
8	표시광고	원료·성분·함량	7	1.3%	26	3.8%	▲271.4%	▲4
9	화학적 원인요소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	23	4.3%	19	2.8%	▽17.4%	▽2
10	안전위생	위생관리	27	5.1%	18	2.6%	▽33.3%	▽5
10개 합계			420	79.2%	595	86.5%	▲41.7%	
전체 합계			530	100.0%	688	100.0%	▲29.8%	

○ 벨기에(5위)가 생산국인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과 원인요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유형 : 대분류-중분류) 가공식품 중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82건, 12.1%, ▽19.6%)이 가장 많았고,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71건, 10.5%, ▽30.4%), 빙과류(60건, 8.9%, ▲5,900.0%)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02건, 18.0%)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02건, 8.0%)
> 농산가공식품류(74건, 13.0%) 등

표 2-12. '20년 및 '21년 벨기에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02	18.0%	82	12.1%	▽19.6%	-
2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02	18.0%	71	10.5%	▽30.4%	▽1
3	가공식품	빙과류	1	0.2%	60	8.9%	▲5,900.0%	▲15
4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32	5.6%	57	8.4%	▲78.1%	-
5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74	13.0%	57	8.4%	▽23.0%	▽2
6	가공식품	조미식품	30	5.3%	48	7.1%	▲60.0%	-
7	가공식품	유가공품	29	5.1%	48	7.1%	▲65.5%	▲1
8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16	2.8%	46	6.8%	▲187.5%	▲3
9	축산물	식육류	36	6.3%	27	4.0%	▽25.0%	▽4
10	가공식품	음료류	7	1.2%	21	3.1%	▲200.0%	▲5
10개 합계			429	75.5%	517	76.4%	▲20.5%	
전체 합계			568	100.0%	677	100.0%	▲19.2%	

- (원인요소 : 대분류-중분류) 화학적 원인요소 중 잔류농약(297건, 43.9%, ▲116.8%)이 가장 많았고, 이어 표시광고 위반 중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131건, 19.4%, ▲44.0%),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107건, 15.8%, ▼33.5%) 순으로 이어졌음

* ('20년) 미생물(161건, 28.3%) > 잔류농약(137건, 24.1%) >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91건, 16.0%) 등

표 2-13. '20년 및 '21년 벨기에산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137	24.1%	297	43.9%	▲116.8%	▲1
2	표시광고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91	16.0%	131	19.4%	▲44.0%	▲1
3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161	28.3%	107	15.8%	▼33.5%	▼2
4	물리적 원인요소	이물질	33	5.8%	42	6.2%	▲27.3%	-
5	화학적 원인요소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	28	4.9%	16	2.4%	▼42.9%	-
6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18	3.2%	16	2.4%	▼11.1%	▲2
7	표시광고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7	1.2%	16	2.4%	▲128.6%	▲6
8	화학적 원인요소	기타	25	4.4%	12	1.8%	▼52.0%	-
9	화학적 원인요소	식품첨가물	8	1.4%	6	0.9%	▼25.0%	▲3
10	안전위생	위생관리	6	1.1%	5	0.7%	▼16.7%	▲4
10개 합계			514	90.5%	648	95.7%	▲26.1%	
전체 합계			568	100.0%	677	100.0%	▲19.2%	

4. 식품유형 현황

- '21년도 식품유형(대분류) 현황은 가공식품(7,914건, 54.0%), 농산물(3,044건, 20.8%), 건강식품류(1,139건, 7.8%) 순으로, 상위 3개 식품유형이 '21년 전체 위해 식품정보의 82.6%에 달함('20년도 상위 3개 항목 비율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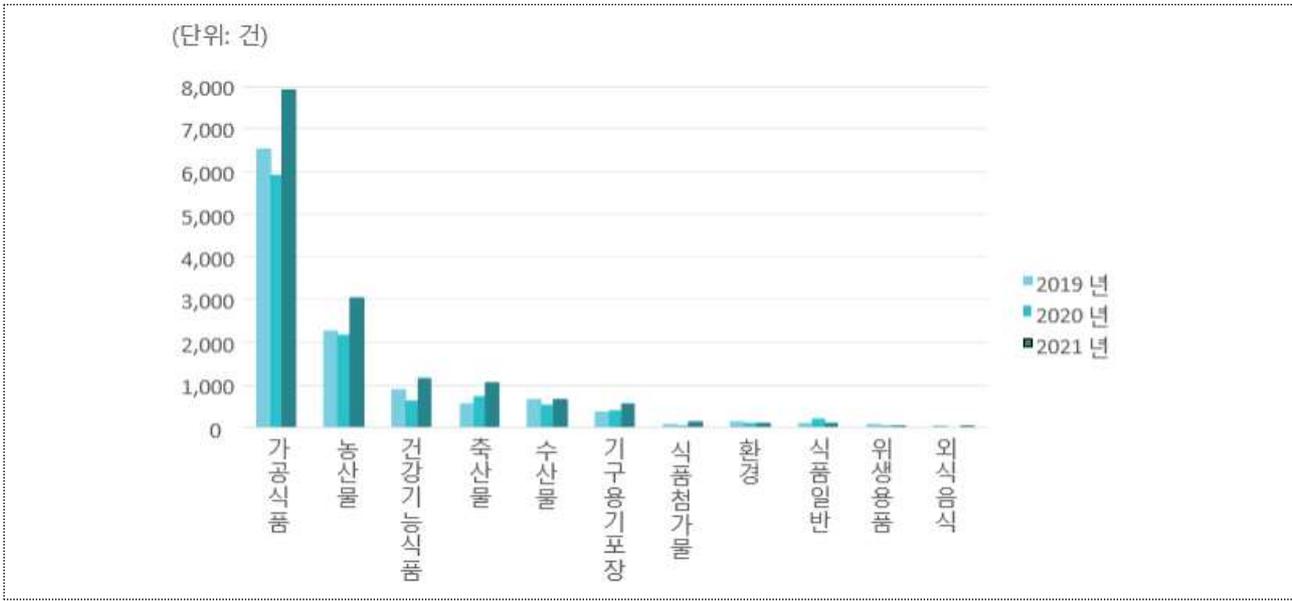


그림 2-3.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별 현황 (상위 10개)

- 식품유형(대분류)에서 각각 1위와 2위인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우리나라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품목군(건수 기준)에서 1위와 4위¹⁵⁾이었음

표 2-14.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순위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			'20년도 수입신고 부적합		
	식품유형(대분류)	건수	비율	식품유형(대분류)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7,914	54.0%	가공식품	588	54.3%
2	농산물	3,044	20.8%	기구용기포장	201	18.6%
3	건강식품류	1,139	7.8%	건강기능식품	103	9.5%
4	축산물	1,035	7.1%	농·임산물	94	8.7%
5	수산물	641	4.4%	축산물 ¹⁶⁾	43	4.0%
6	기구용기포장	551	3.8%	수산물	39	3.6%
7	식품첨가물	126	0.9%	식품첨가물	15	1.4%
8	기타	203	1.4%	-	-	-
전체 합계		14,653	100.0%		1,083	100.0%

15) 「2021 수입식품등 검사연보」에서는 농·임산물을 하나의 품목군으로 간주

16) 「2021 수입식품등 검사연보」에서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로 간주

○ '21년도 식품유형(중분류) 현황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1,331건, 9.1%), 건강식품류(1,139건, 7.8%), 농산가공식품류(1,011건, 6.9%), 식육류(979건, 6.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752건, 5.1%) 순임

- '21년 위해식품정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의 식품유형(소분류)은 빵류(632건), 과자류(619건),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일반(46건), 떡류(34건) 순으로 나타났음

- 상위 10개 식품유형 중 '20년 대비 증가율이 컸던 식품유형(중분류)는 빙과류(▲556건, ▲712.8%), 과일류(▲337건, ▲93.1%), 건강식품류(▲486건, ▲74.4%) 순이었음

표 2-15.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130	10.4%	1,331	9.1%	▲17.8%	-
2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653	6.0%	1,139	7.8%	▲74.4%	▲2
3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912	8.4%	1,011	6.9%	▲10.9%	▽1
4	축산물	식육류	680	6.2%	979	6.7%	▲44.0%	▽1
5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642	5.9%	752	5.1%	▲17.1%	-
6	농산물	과일류	362	3.3%	699	4.8%	▲93.1%	▲7
7	농산물	채소류	490	4.5%	674	4.6%	▲37.6%	-
8	가공식품	빙과류	78	0.7%	634	4.3%	▲712.8%	▲22
9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438	4.0%	608	4.1%	▲38.8%	-
10	가공식품	조미식품	445	4.1%	586	4.0%	▲31.7%	▽2
10개 항목 합계			5,830	53.5%	8,413	57.4%	▲44.3%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5. 원인요소 현황

- '21년도 원인요소별(대분류) 현황을 보면 화학적 원인요소(6,281건, 42.9%), 생물학적 원인요소(3,999건, 27.3%), 표시광고 위반(1,728건, 11.8%) 순위로 상위 3개 원인요소가 '21년도 위해식품정보의 81.9%를 차지함('20년도 상위 3개 항목 비율 79.4%)
 - * ('20년) 화학적 원인요소(3,927건, 36.0%) > 생물학적 원인요소(3,240건, 29.7%) > 표시광고 위반(1,479건, 13.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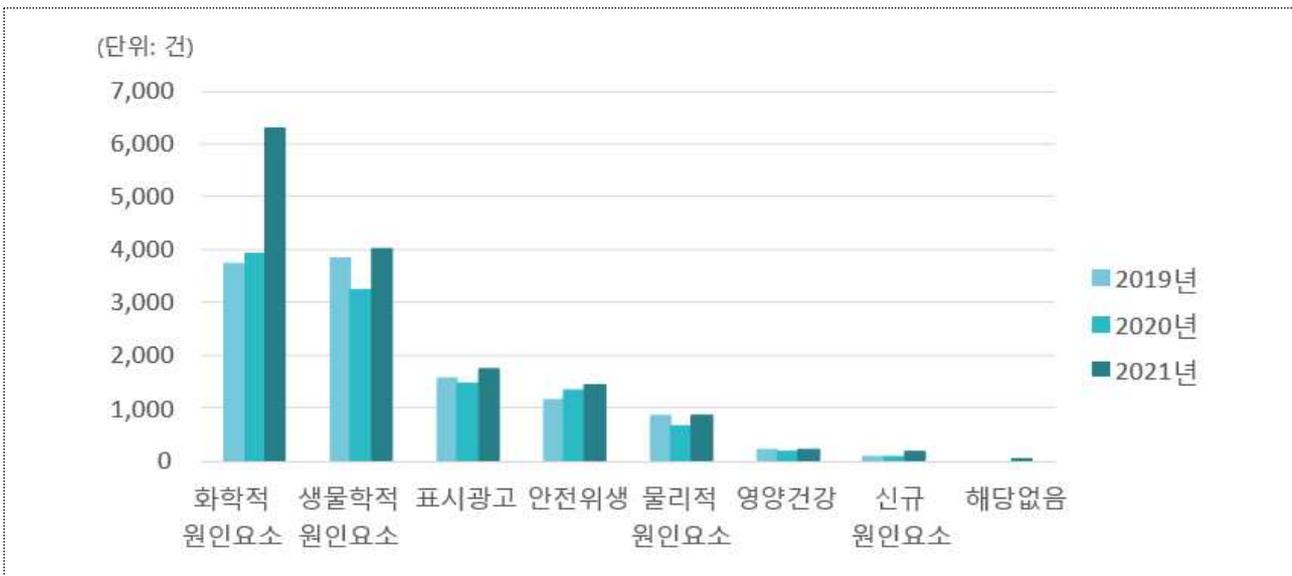


그림 2-4.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원인요소별 현황 (상위 10개)

- 원인요소별(중분류)로는 잔류농약 관련 정보(4,147건, 28.3%)가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2,753건, 18.8%),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1,211건, 8.3%), 안전관리 미흡(836건, 5.7%), 식품첨가물(740건, 5.1%) 순으로 나타났음
 - '21년 위해식품정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잔류농약의 상세 원인요소(소분류)는 에틸렌 옥사이드(2,280건), 잔류농약 일반(432건),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216건),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97건) 순이었음
 - 상위 20개 원인요소 중 '20년 대비 증가율이 컸던 원인요소(중분류)는 잔류농약('20년 대비 ▲114.4%, ▲2,213건), 신규식품(▲138.9%, ▲75건), 동식물질병(▲99.5%, ▲221건) 순이었음

표 2-16.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20개)

'21년도 순위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 변동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화학적 원인요소	잔류농약	1,934	17.8%	4,147	28.3%	▲114.4%	▲1
2	생물학적 원인요소	미생물	2,348	21.6%	2,753	18.8%	▲17.2%	▽1
3	표시광고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1,089	10.0%	1,211	8.3%	▲11.2%	-
4	안전위생	안전관리	932	8.6%	836	5.7%	▽10.3%	-
5	화학적 원인요소	식품첨가물	629	5.8%	740	5.1%	▲17.6%	-
6	생물학적 원인요소	곰팡이독소	515	4.7%	663	4.5%	▲28.7%	▲1
7	물리적 원인요소	이물질	520	4.8%	638	4.4%	▲22.7%	▽1
8	안전위생	위생관리	411	3.8%	596	4.1%	▲45.0%	▲1
9	화학적 원인요소	기구용기포장 유래물질	419	3.8%	495	3.4%	▲18.1%	▽1
10	생물학적 원인요소	동식물질병	222	2.0%	443	3.0%	▲99.5%	▲3
11	화학적 원인요소	중금속	280	2.6%	292	2.0%	▲4.3%	-
12	화학적 원인요소	기타	297	2.7%	278	1.9%	▽6.4%	▽2
13	영양건강	영양성분	159	1.5%	198	1.4%	▲24.5%	▲1
14	화학적 원인요소	의약품성분	230	2.1%	191	1.3%	▽17.0%	▽2
15	물리적 원인요소	성상	119	1.1%	184	1.3%	▲54.6%	▲2
16	표시광고	원료·성분·함량	120	1.1%	170	1.2%	▲41.7%	-
16	표시광고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95	0.9%	153	1.0%	▲61.1%	▲1
18	화학적 원인요소	동물용의약품	138	1.3%	138	0.9%	-	▽3
19	신규 원인요소	신규식품	54	0.5%	129	0.9%	▲138.9%	-
20	생물학적 원인요소	생물독소	120	1.1%	102	0.7%	▽15.0%	▽4
20개 항목 합계			10,631	97.6%	14,357	98.0%	▲45.0%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1. 생산국-식품유형 현황

□ '21년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식품유형(대분류)을 보면, 프랑스의 가공식품(1,946건, '20년 대비 ▲245.6%) 정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국의 가공식품(938건, ▲0.1%), 미국의 가공식품(637건, ▲10.8%), 벨기에의 가공식품(503건, ▲14.8%) 등으로 나타났음

* ('20년) 중국 가공식품 > 미국 가공식품 > 프랑스 가공식품 > 벨기에 가공식품 순

○ '21년도 생산국별 식품유형(대분류)의 중국의 가공식품(2순위)과 미국의 가공식품(3순위)은 우리나라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건수 기준)에서 각각 1순위와 3순위를 차지하였음

표 2-17.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식품유형별 현황 및 '20년 수입신고 부적합 현황

순위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			'20년도 수입신고 부적합		
	생산국-식품유형	건수	비율	생산국-식품유형	건수	비율
1	프랑스-가공식품	1,946	13.3%	중국-가공식품	149	13.8%
2	중국-가공식품	938	6.4%	베트남-가공식품	73	6.7%
3	미국-가공식품	637	4.3%	미국-가공식품	50	4.6%
4	벨기에-가공식품	503	3.4%	미국-건강기능식품	40	3.7%
5	필리핀-가공식품	500	3.4%	중국-농·임산물	32	3.0%
6	일본-가공식품	467	3.2%	태국-가공식품	30	2.8%
7	터키-농산물	371	2.5%	인도-가공식품	27	2.5%
8	중국-농산물	345	2.4%	캐나다건강기능식품	25	2.3%
9	폴란드-축산물	333	2.3%	중국-식품첨가물	11	1.0%
10	중국-기구용기포장	316	2.2%	인도-농·임산물	10	0.9%
10개 항목 합계		6,356	43.4%	10개 항목 합계	447	41.3%
전체 합계		14,653	100.0%	전체 합계	1,083	100.0%

- '21년도 위해식품 정보의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을 보면, 프랑스의 병과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필리핀의 가공식품 일반, 폴란드의 식육류, 프랑스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순으로 나타났음
 - * ('20년) 필리핀 가공식품 일반 > 인도 종실류 > 폴란드 식육류 > 중국 기구용기포장 > 중국 농산가공식품류 순
- 상위 10순위 중 프랑스의 병과류('20년 대비 ▲44,600.0%, ▲446건), 프랑스의 건강식품류(▲14,150.0%, ▲283건), 프랑스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89.4%, ▲197건), 프랑스 유가공품(▲287.5%, ▲184건)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컸음
 - '21년 프랑스산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정보(301건)의 상세 식품유형(소분류)을 보면, 소시지류(129건), 양념육류(104건), 햄류(45건) 순으로 많았으며, '21년 프랑스산 유가공품 정보(248건)는 치즈류(202건), 유크림류(17건) 순이었음
 - '20년 상위 2위를 차지한 인도산 종실류(참깨 등)(293건)는 '21년 22위(95건, '20년 대비 ▽67.6%, ▽198건)로 하락하였음
 - * 인도산 종실류의 잔류농약 에틸렌옥사이드 정보(건): ('20년) 266건 ⇨ ('21년) 67건
- '20년도 상위 1순위였던 필리핀의 가공식품 일반은 '21년에는 2순위('20년 대비 ▲11.7%, ▲38건)를 차지하였음¹⁷⁾
- '21년 폴란드의 식육류는 3위('20년 대비 ▲23.0%, ▲61건)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정보(80.7%)는 유럽연합의 RASFF에서 발표되었음

17)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이 발표한 식품 및 식이보충제 주의 경고 정보는 원인요소가 섭취 안전이 우려되는 위해 요소가 아닌 미등록 관련 정보

표 2-18.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생산국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가공식품	빙과류	1	0.0%	447	3.1%	▲44,600.0%
2	필리핀	가공식품	가공식품 일반	325	3.0%	363	2.5%	▲11.7%
3	폴란드	축산물	식육류	265	2.4%	326	2.2%	▲23.0%
4	프랑스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77	1.6%	316	2.2%	▲78.5%
5	중국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일반	259	2.4%	316	2.2%	▲22.0%
6	프랑스	가공식품	식육기공품 및 포장육	104	1.0%	301	2.1%	▲189.4%
7	프랑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2	0.0%	285	1.9%	▲14,150.0%
8	프랑스	가공식품	유가공품	64	0.6%	248	1.7%	▲287.5%
9	중국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92	1.8%	237	1.6%	▲23.4%
10	중국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231	2.1%	187	1.3%	▽19.0%
10개 항목 합계				1,620	14.9%	3,026	20.7%	▲386.8%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21년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별(중분류) 현황은 <붙임 7> 참조>

2. 생산국-원인요소 현황

□ '21년 생산국별 원인요소(대분류)를 보면, 프랑스의 화학적 원인요소(1,616건, '20년 대비 ▲411.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중국의 화학적 원인요소(858건, ▲8.2%), 프랑스의 생물학적 원인요소(612건, ▲122.5%), 필리핀의 안전위생(547건, ▽11.2%) 등이었음

* ('20년) 중국의 화학적 원인요소 > 필리핀의 안전위생 > 중국의 생물학적 원인요소 > 인도의 화학적 원인요소 순

□ '21년도 생산국별 원인요소(중분류)를 보면, 프랑스의 잔류농약('20년 대비 ▲464.7%, ▲1,250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필리핀의 안전관리 미흡(▽11.2%, ▽69건), 프랑스의 미생물(▲117.1%, ▲294건), 중국의 미생물(▽8.4%, ▽38건), 터키의 잔류농약(▲198.2%, ▲224건) 순이었음

○ 프랑스의 잔류농약(1,519건) 관련 정보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정보 출처는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1,291건, 85.0%, ▲5,279.2%)이었음

○ 필리핀의 안전관리 미흡 정보(546건)는 모두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서 발표되었으며, 프랑스의 미생물 정보(545건)는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396건, 72.7%, ▲19,700.0%), 유럽연합 RASFF(85건, 15.6%, ▽24.1%)에서 주로 발표되었음

○ 중국의 미생물 정보(416건)는 대부분 중국의 식품화반넷(248건, 59.6%, ▽20.0%)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91건, 21.9%, ▲31.9%)에서 발표되었으며, 터키의 잔류농약(337건) 관련 정보는 대부분이 유럽연합 RASFF(330건, 97.9%, ▲192.0%)에서 통보되었음

표 2-19.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10개)

'21년도 순위	생산국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잔류농약	269	2.5%	1,519	10.4%	▲464.7%
2	필리핀	안전관리 미흡	615	5.6%	546	3.7%	▽11.2%
3	프랑스	미생물	251	2.3%	545	3.7%	▲117.1%
4	중국	미생물	454	4.2%	416	2.8%	▽8.4%
5	터키	잔류농약	113	1.0%	337	2.3%	▲198.2%
6	미국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254	2.3%	320	2.2%	▲26.0%
7	폴란드	미생물	298	2.7%	307	2.1%	▲3.0%
8	벨기에	잔류농약	137	1.3%	297	2.0%	▲116.8%
9	중국	잔류농약	161	1.5%	279	1.9%	▲73.3%
10	인도	잔류농약	328	3.0%	249	1.7%	▽24.1%
10개 항목 합계			2,880	26.4%	4,815	32.9%	▲67.2%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21년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은 <붙임 8> 참조>

3. 식품유형-원인요소 현황

□ '21년도 식품유형(대분류)별 원인요소(대분류)는 가공식품-화학적 원인요소(2,705건, 18.5%, '20년 대비 ▲82.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농산물-화학적 원인요소(1,907건, 13.0%, ▲35.6%), 가공식품-생물학적 원인요소(1,900건, 13.0%, ▲14.5%) 등이었음(붙임 9)

* ('20년) 가공식품-생물학적 원인요소 > 가공식품-화학적 원인요소 > 농산물-화학적 원인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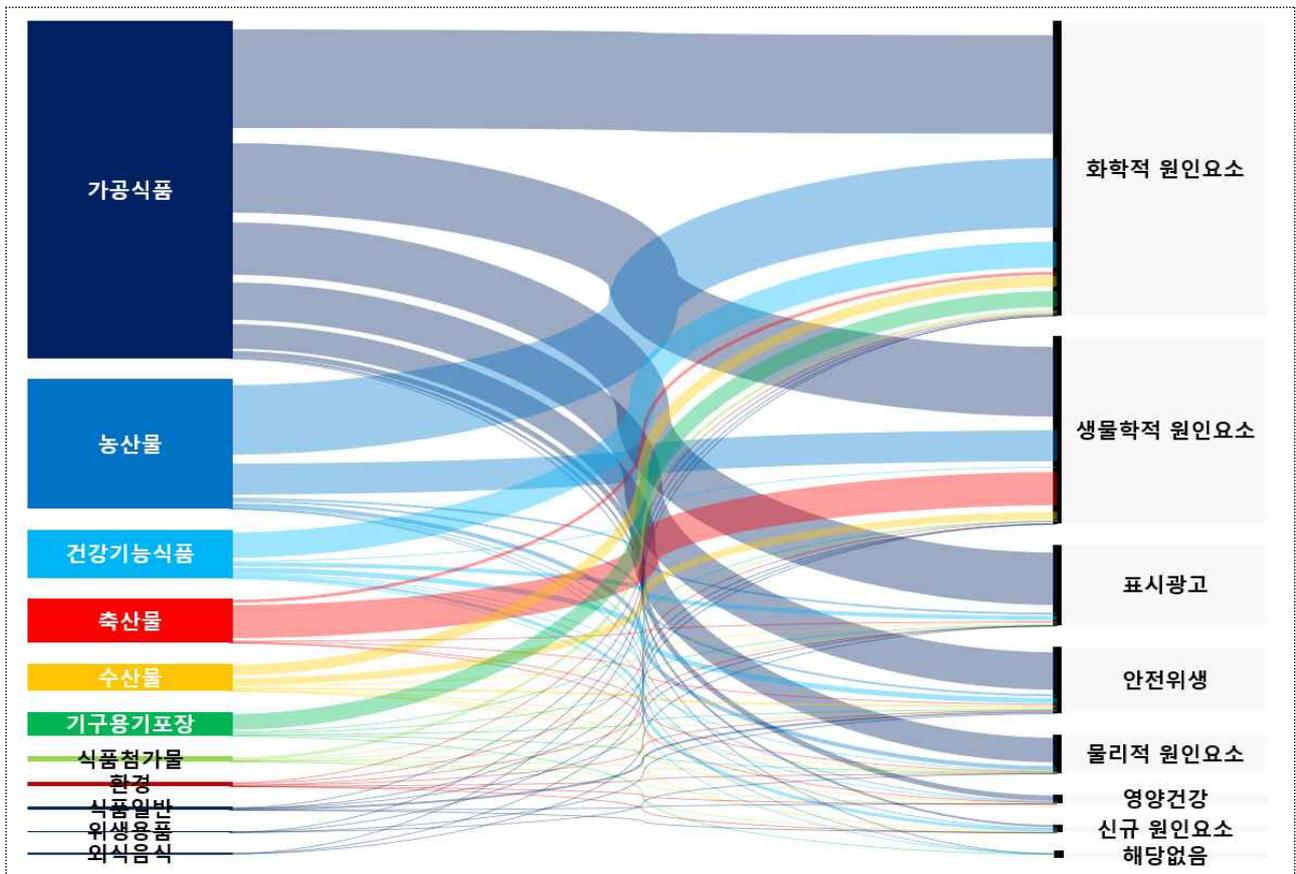


그림 2-5.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대분류)-원인요소(대분류) 현황

□ '21년도 식품유형(중분류)별 원인요소(중분류)는 과일류의 잔류농약(556건, '20년 대비 ▲114.7%) 정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병과류의 잔류농약(532건, '20년 0건), 채소류의 잔류농약(513건, ▲33.6%), 식육류의 미생물(436건, ▲8.5%) 순이었음

○ '21년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잔류농약의 과일류, 병과류 및 채소류를 살펴보면, 출처는 주로 유럽연합의 RASFF(539건, 33.7%, ▲201.1%),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409건, 25.5%, '20년 0건), 대만의 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231건, 14.4%, ▲48.1%)에서 발표되었음

- 과일류는 오렌지(85건), 감귤(78건), 자몽(51건) 순이었으며, 과일류의 주요 원인 잔류농약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96건), 잔류농약 일반(95건), 클로르피리포스-메틸(56건) 순이었음
 - 빙과류는 대부분 아이스크림류(528건)였으며, 주요 원인 잔류농약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525건, 98.7%)였음
 - * 그 외 '잔류농약 일반' 7건
 - 채소류는 피망(파프리카 포함)(140건), 고추(77건), 기타(39건), 멜론(24건) 순이었으며, 채소류의 주요 원인 잔류농약 성분은 잔류농약 일반(116건), 기타(40건),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33건), 클로르피리포스-메틸(32건) 순이었음
- '21년 식육류의 미생물 정보는 유럽연합의 RASFF(378건, 86.7%, ▲3.8%)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32건, 7.3%, '20년 0건), 벨기에의 연방식품안전청(6건, 1.4%, ▼66.7%) 순이었음
- 식육류는 닭고기(261건), 쇠고기(55건) 등이 있었으며, 식육류의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367건), 병원성 대장균(37건) 순이었음

표 2-20.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식품유형(중분류)-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원인요소(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과일류	잔류농약	259	2.4%	556	3.8%	▲114.7%
2	빙과류	잔류농약	0	0.0%	532	3.6%	-
3	채소류	잔류농약	384	3.5%	513	3.5%	▲33.6%
4	식육류	미생물	402	3.7%	436	3.0%	▲8.5%
5	기구용기포장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343	3.1%	431	2.9%	▲25.7%
6	건강식품류	잔류농약	0	0.0%	424	2.9%	-
7	식육류	동식물질병	210	1.9%	415	2.8%	▲97.6%
8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미생물	380	3.5%	375	2.6%	▼1.3%
9	가공식품 일반	안전관리 미흡	328	3.0%	367	2.5%	▲11.9%
10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261	2.4%	332	2.3%	▲27.2%
10개 항목 합계			2,567	23.6%	4,381	29.9%	▲70.7%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21년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별(중분류)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은 <붙임 9> 참조>

4. 생산국-식품유형-원인요소 현황

□ '21년도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원인요소(중분류)'는 프랑스산 병과류의 잔류농약 정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필리핀산 가공식품 일반의 안전관리 미흡, 프랑스산 건강식품류의 잔류농약 순이었음

* ('20년) 필리핀산 가공식품 일반의 안전관리 미흡 > 인도산 증실류의 잔류농약 > 폴란드산 식육류의 미생물 순

○ 상위 20위 중 프랑스산 병과류의 잔류농약('20년 0건, '21년 440건)과 프랑스산 건강식품류의 잔류농약('20년 0건, '21년 265건) 관련 정보가 대폭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프랑스산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정보 증가율이 컸음

* 프랑스산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208건, ▲52.9%), 즉석식품류(135건, ▲743.8%), 조미식품(94건, ▲422.2%), 농산가공식품류(87건, ▲128.9%)

○ '20년 및 '21년 필리핀산 가공식품 일반의 안전관리 미흡 정보(363건, '20년 대비 ▲11.7%, ▲38건)는 모두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서 발표했다음

○ 폴란드산 식육류의 미생물 정보는 2017년¹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및 '21년 폴란드산 닭고기의 살모넬라 정보는 '19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21년 유럽연합 RASFF 정보 중 통보국이 폴란드인 정보는 전년 대비 73건(▲152.1%) 증가하였음

구분	건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폴란드산-식육류-미생물	39	53	147	237	263	739
폴란드산-닭고기-살모넬라	32	37	111	210	200	590
유럽 RASFF(통보국: 폴란드)-폴란드산-닭고기-살모넬라	0	3	48	48	121	220

○ 중국의 기구용기포장은 2014년¹⁹⁾부터 매년 상위 5순위 내를 차지함

* ('14년) 169건(1순위) ⇨ ('15년) 167건(2순위) ⇨ ('16년) 151건(3순위) ⇨ ('17년) 175건(2순위) ⇨ ('18년) 150건(1순위) ⇨ ('19년) 146건(2순위) ⇨ ('20년) 222건(4순위) ⇨ ('21년) 233건(5순위)

○ 프랑스산 유가공품의 미생물(193건, '20년 대비 ▲271.2%, ▲141건)과 프랑스산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미생물(168건, ▲136.6%, ▲97건) 관련 정보는 축산물가공품의 리스테리아 및 살모넬라 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18) 「2017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부터 해외 위해식품정보 중 폴란드산 식육류의 미생물 정보 건수 확인 가능함
 19) 「2014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부터 해외 위해식품정보 중 중국산 기구용기포장의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정보 건수 확인 가능함

* (프랑스산 유가공품과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리스테리아 정보)

('20년) 78건 ⇨ ('21년) 238건('20년 대비 ▲205.1%, ▲160건)

* (프랑스산 유가공품과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살모넬라 정보)

('20년) 31건 ⇨ ('21년) 67건('20년 대비 ▲116.1%, ▲36건)

○ 인도산 종실류의 잔류농약 정보는 '20년 272건으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3,785.7%)을 보인 반면, '21년에는 87건으로 감소하였음

표 2-21.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상위 20개)

'21년도 순위	생산국	식품유형 (중분류)	원인요소 (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빙과류	잔류농약	0	0.0%	440	3.0%	-
2	필리핀	가공식품 일반	안전관리 미흡	325	3.0%	363	2.5%	▲11.7%
3	프랑스	건강기능식품	잔류농약	0	0.0%	265	1.8%	-
4	폴란드	식육류	미생물	237	2.2%	263	1.8%	▲11.0%
5	중국	기구용기포장일반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222	2.0%	233	1.6%	▲5.0%
6	프랑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잔류농약	136	1.2%	208	1.4%	▲52.9%
7	프랑스	유가공품	미생물	52	0.5%	193	1.3%	▲271.2%
8	프랑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미생물	71	0.7%	168	1.1%	▲136.6%
9	터키	과일류	잔류농약	45	0.4%	165	1.1%	▲266.7%
10	터키	채소류	잔류농약	60	0.6%	137	0.9%	▲128.3%
11	프랑스	즉석식품류	잔류농약	16	0.1%	135	0.9%	▲743.8%
12	중국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미생물	87	0.8%	105	0.7%	▲20.7%
13	브라질	향신료	미생물	46	0.4%	101	0.7%	▲119.6%
14	미국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60	0.6%	98	0.7%	▲63.3%
15	프랑스	조미식품	잔류농약	18	0.2%	94	0.6%	▲422.2%
16	중국	채소류	잔류농약	72	0.7%	94	0.6%	▲30.6%
17	프랑스	농산가공식품류	잔류농약	38	0.3%	87	0.6%	▲128.9%
18	인도	종실류	잔류농약	272	2.5%	87	0.6%	▽68.0%
19	중국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위생관리 미흡	48	0.4%	83	0.6%	▲72.9%
20	제외국	식육류	동식물질병	15	0.1%	74	0.5%	▲393.3%
20개 항목 합계				1,820	16.7%	3,393	23.2%	▲86.4%
전체 합계				10,894	100.0%	14,653	100.0%	▲34.5%

* 제외국은 정보에 생산국이 2개국 이상인 경우임

제4장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요소별 현황

잔류농약

□ '21년도 잔류농약 성분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4,884건('20년 대비 ▲2,303건, ▲89.2%)²⁰⁾으로, 생산국별 3개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1년 잔류농약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²¹⁾은 프랑스, 터키, 인도, 중국 순이었음

표 3-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잔류농약 현황 (단위: 건)

3개년 합계 순위	생산국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프랑스	16	272	1,515	1,803
2	인도	155	435	427	1,017
3	중국	257	252	384	893
4	터키	99	181	440	720
5	대만	214	246	118	578
6	일본	135	161	186	482
7	벨기에	9	141	299	449
8	베트남	103	122	149	374
9	태국	108	58	56	222
10	미국	85	54	57	196
11	이집트	6	88	97	191
12	대한민국	46	55	75	176
13	독일	2	61	110	173
14	이탈리아	30	30	61	121
15	스페인	15	35	62	112
16	인도네시아	23	26	53	102
17	네덜란드	8	42	31	81
18	칠레	17	16	41	74
19	제외국	5	15	41	61
20	영국	6	22	27	55
21	폴란드	7	11	36	54
22	스리랑카	18	3	33	54
23	홍콩	22	13	18	53
24	기타*	250	242	568	1,060
	합계	1,636	2,581	4,884	9,101

* 최근 3년 발생건수 합계 50건 이하인 81개국의 총합

20) 1건의 위해식품정보에서 복수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이를 각각의 개별 건으로 처리

21) 생산국은 위해식품정보에 공개된 원산지를 지칭하며, 내수제품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 미공개 정보는 정보 발표국을 생산국으로 분류

○ '21년도 잔류농약 성분별 해외 위해식품정보를 보면, 에틸렌옥사이드(2,267건, '20년 대비 ▲1,439건, ▲173.8%)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클로르피리포스(294건, ▲217건, ▲281.8%), 클로르피리포스-메틸(130건, ▲106건, ▲441.7%) 순으로 나타났음

* ('20년) 에틸렌옥사이드(828건) > 클로르피리포스(77건) > 피프로닐(75건) 순

○ '21년도는 총 319종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위해식품정보가 발생했으며, '19년~'21년 상위 20개 성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20년도 농약 성분 총 222개)

- '19년~'21년 잔류농약 성분별 총합은 에틸렌옥사이드(3,096건) 클로르피리포스(478건), 피프로닐(198건), 잔류농약 일반(186건), 아세타미프리드(183건) 순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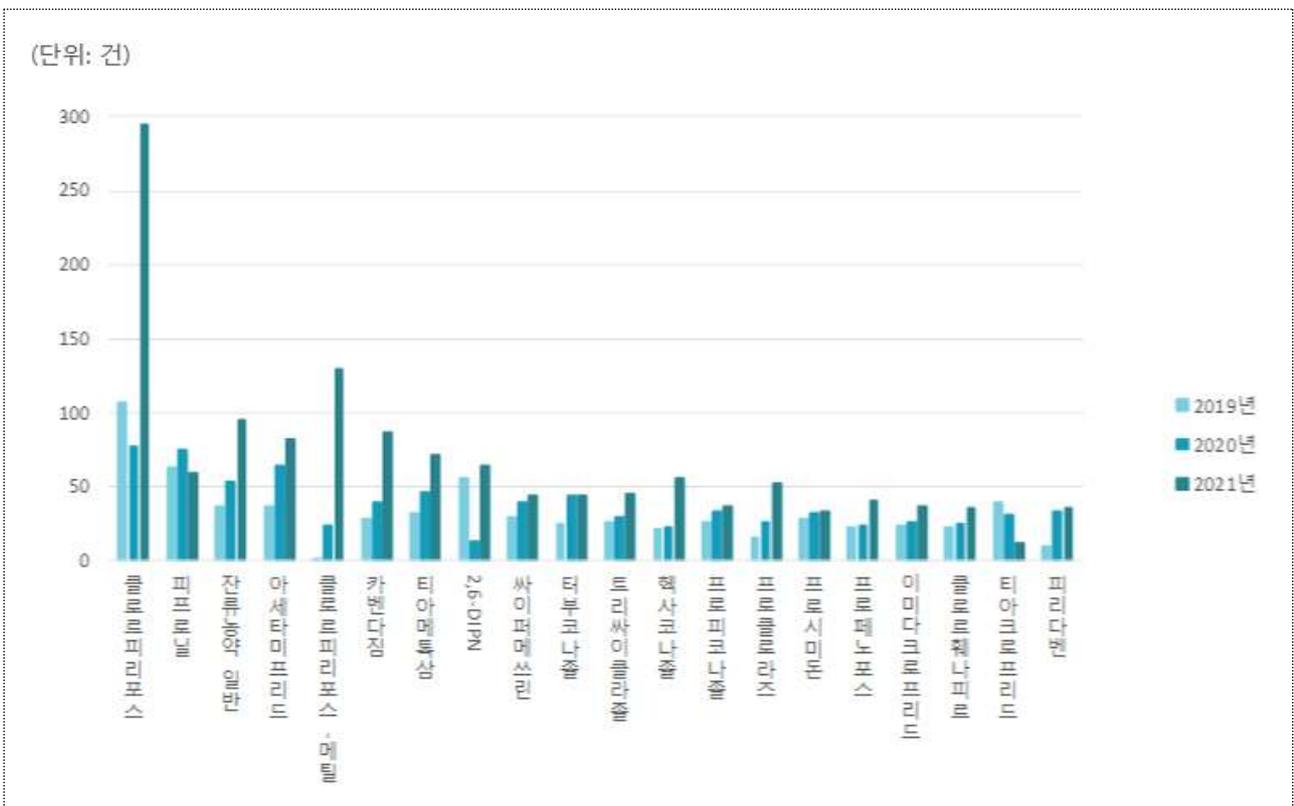


그림 3-1. '19~'21년 잔류농약 성분별 3개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현황 (에틸렌옥사이드를 제외한 상위 20개)

○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2,267건으로 전년 대비 173.8% 증가하였음

- '21년 발표국은 프랑스(1,345건, 59.3%), 유럽연합(475건, 21.0%), 벨기에(250건, 11.0%) 순으로 전체의 90.00%를 차지함
- * 프랑스는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제품 일체를 회수하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신속하게 적용한 유일한 국가로 유럽국가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²²⁾
- * ('20년) 유럽연합(414건, 50.0%) > 프랑스(225건, 27.2%) > 벨기에(105건, 12.7%) 순
-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 관련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제품의 생산국²³⁾은 프랑스(1,443건, 63.7%), 벨기에(256건, 11.3%), 인도(132건, 5.8%), 독일(95건, 4.2%) 순이었으며, 전체의 85.0%를 차지함
- * ('20년) 인도(276건, 33.3%) > 프랑스(260건, 31.4%) > 벨기에(127건, 15.3%) > 독일(46건, 5.6%) 순

표 3-2.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 현황

'21년도 순위	생산국	2020년		2021년		증감률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260	31.4%	1,443	63.7%	▲455.0%	▲1,183
2	벨기에	127	15.3%	256	11.3%	▲101.6%	▲129
3	인도	276	33.3%	132	5.8%	▽52.2%	▽144
4	독일	46	5.6%	95	4.2%	▲106.5%	▲49
5	기타*	119	14.4%	341	15.0%	▲186.6%	▲222
전체 합계		828	100.0%	2,267	100.0%	▲173.8%	▲1,439

*발생 건수 40건 이하인 국가들의 총합

22) 프랑스 언론 슈드우에스트(SUD OUEST), “에틸렌옥사이드: 식품 회수는 계속되고 스캔들은 확대돼(Oxyde d'éthylène : les rappels de produits alimentaires continuent, le scandale s'amplifie)” ('21.08.11)

23) 생산국은 위해식품정보에 공개된 원산지를 지칭하며, 원산지 미공개 정보는 정보발표국을 생산국으로 분류함

- 식품유형(중분류) 기준으로 '20년에는 16개 유형에서 21년에는 35개로 식품유형이 확대²⁴⁾되었으며, 병과류, 건강식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순으로 발생함

* 인도산 종실류: ('20년) 266건 -> 21년 68건

표 3-3.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병과류	0	0.0%	521	23.0%	▲521	-
2	건강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0	0.0%	409	18.0%	▲409	-
3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33	28.1%	276	12.2%	▲43	▲18.5%
4	가공식품	조미식품	49	5.9%	166	7.3%	▲117	▲238.8%
5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18	2.2%	158	7.0%	▲140	▲777.8%
6	농산물	종실류	366	44.2%	128	5.6%	▽238	▽65.0%
7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106	12.8%	126	5.6%	▲20	▲18.9%
8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4	0.5%	83	3.7%	▲79	▲1,975.0%
9	식품첨가물	천연첨가물	0	0.0%	57	2.5%	▲57	-
10	가공식품	면류	0	0.0%	55	2.4%	▲55	-
11	가공식품	유가공품	2	0.2%	54	2.4%	▲52	▲2,600.0%
12	농산물	향신료	0	0.0%	52	2.3%	▲52	-
13	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류	3	0.4%	36	1.6%	▲33	▲1,100.0%
14	가공식품	식용유지류	13	1.6%	26	1.1%	▲13	▲100.0%
15	가공식품	음료류	0	0.0%	24	1.1%	▲24	-
16	가공식품	가공식품 일반	7	0.8%	16	0.7%	▲9	▲128.6%
17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일반	0	0.0%	11	0.5%	▲11	-
18	식품첨가물	기타	0	0.0%	9	0.4%	▲9	-
19	농산물	채소류	0	0.0%	8	0.4%	▲8	-
20	농산물	곡류	1	0.1%	7	0.3%	▲6	▲600.0%
21	가공식품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8	2.2%	7	0.3%	▽11	▽61.1%
22	농산물	차	0	0.0%	6	0.3%	▲6	-
23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품	0	0.0%	6	0.3%	▲6	-
24	식품일반	식품일반	3	0.4%	4	0.2%	▲1	▲33.3%
25	농산물	기타 식물류	0	0.0%	4	0.2%	▲4	-
26	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	0	0.0%	3	0.1%	▲3	-
27	가공식품	당류	0	0.0%	3	0.1%	▲3	-
28	가공식품	잡류	0	0.0%	3	0.1%	▲3	-
29	가공식품	두부류 또는 목류	2	0.2%	2	0.1%	-	-
30	가공식품	특수용도식품	0	0.0%	2	0.1%	▲2	-
31	농산물	과일류	0	0.0%	1	0.0%	▲1	-
32	농산물	견과	2	0.2%	1	0.0%	▽1	▽50.0%
33	가공식품	동물성가공식품류	0	0.0%	1	0.0%	▲1	-
34	가공식품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0	0.0%	1	0.0%	▲1	-
35	농산물	콩류	0	0.0%	1	0.0%	▲1	-
-	농산물	농산물일반	1	0.1%	0	0.0%	▽1	-
전체 합계			828	100.0%	2,267	100.0%	▲1,439	▲173.8%

24) '20년은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첨가에서 기인하여 참깨 및 참깨 함유 빵류, 기타농산가공품(빵 믹스 등)이 위주였으나, '21년에는 아이스크림 유향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커스트콩검) 또는 환경 등으로 오염경로 확대

- 생산국별 식품유형(소분류)을 보면, 프랑스산 아이스크림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프랑스산 건강식품류, 프랑스산 빵류, 프랑스산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순이었으며, '20년 1순위였던 인도산 종실류는 '21년 6순위로 하락하였음

표 3-4. '20년 및 '21년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식품유형(소분류) 현황

'21년도 순위	생산국	식품유형(소분류)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프랑스	가공식품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0	0.0%	428	18.9%	▲428	-
2	프랑스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0	0.0%	257	11.3%	▲257	-
3	프랑스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빵류	36	4.3%	152	6.7%	▲116	▲322.2%
4	프랑스	가공식품	즉석식품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0	1.2%	124	5.5%	▲114	▲1,140.0%
5	프랑스	가공식품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30	3.6%	74	3.3%	▲44	▲146.7%
6	인도	농산물	종실류	참깨	266	32.1%	61	2.7%	▽205	▽77.1%
7	벨기에	가공식품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0	0.0%	54	2.4%	▲54	-
8	프랑스	가공식품	조미식품	향신료가공품	4	0.5%	44	1.9%	▲40	▲1,000.0%
9	프랑스	가공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류	97	11.7%	43	1.9%	▽54	▽55.7%
10	독일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0	0.0%	38	1.7%	▲38	-
11	벨기에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건강식품류	0	0.0%	37	1.6%	▲37	-
12	프랑스	가공식품	조미식품	소스류	11	1.3%	33	1.5%	▲22	▲200.0%
13	프랑스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양념육류	1	0.1%	27	1.2%	▲26	▲2,600.0%
14	프랑스	가공식품	수산물가공식품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2	0.2%	25	1.1%	▲23	▲1,150.0%
15	기타*				371	44.8%	870	38.4%	▲499	▲134.5%
전체 합계					828	100%	2,267	100%	▲1,439	▲173.8%

*'21년 기준 발생 건수 20건 이하인 생산국별 식품유형(소분류)의 총합

○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주로 유럽연합 (337건, 79.5%), 태국(29건, 6.8%), 대만(21건, 5.0%)에서 발표되었으며, 전체의 91.3%를 차지함

* ('20년) 유럽연합(73.3%) > 대만(14.9%) > 일본(4.0%) 순

- '21년 생산국은 터키(168건), 중국(51건), 이집트(39건), 인도(6건) 순으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20년도와 동일했음

표 3-5.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 현황

'21년도 순위	생산국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터키	38	37.6%	168	39.6%	▲130	▲342.1%
2	중국	12	11.9%	51	12.0%	▲39	▲325.0%
3	이집트	11	10.9%	39	9.2%	▲28	▲254.5%
4	인도	6	5.9%	28	6.6%	▲22	▲366.7%
5	벨기에	0	0%	20	4.7%	▲20	-
6	기타'	34	33.7%	118	27.8%	▲84	▲247.1%
전체 합계		101	100.0%	424	100.0%	▲323	▲319.8%

*'21년 기준 발생 건수 10건 이하인 국가들의 총합

- 식품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대부분은 농산물(380건, 89.6%)에 해당하였으며, 과일류 (192건, 45.3%), 채소류(86건, 20.3%), 향신료(29건, 6.8%), 콩류(18건, 4.2%) 순으로 많았음

* 특히 과일류는 대부분 감귤류 과일(Citrus fruits)로, 자몽(46건, '20년 대비 ▲45건), 오렌지 (46건, ▲39건), 감귤(42건, ▲38건), 레몬(27건, ▲22건) 순으로 많았음

표 3-6.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21년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농산물	과일류	32	31.7%	192	45%	▲160	▲500.0%
2	농산물	채소류	33	32.7%	86	20%	▲53	▲160.6%
3	농산물	향신료	6	5.9%	29	7%	▲23	▲383.3%
4	농산물	콩류	3	3.0%	18	4%	▲15	▲500.0%
5	가공식품	조미식품	2	2.0%	16	4%	▲14	▲700.0%
6	농산물	종실류	7	6.9%	16	4%	▲9	▲128.6%
7	기타'		18	17.8%	67	15.8%	▲49	▲272.2%
전체 합계			101	100.0%	424	100%	▲323	▲319.8%

*'21년 기준 발생 건수 15건 이하인 국가들의 총합

- '20년 유럽집행위원회의 과일류, 견과류 등에 대한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의 잔류허용기준(MRLs) 강화에 따라, 유럽 RASFF(337건, '20년 대비 ▲263건, ▲355.4%)에서 터키산 과일류, 터키산 채소류, 이집트산 과일류 순으로 많이 발표하였음
- * 자몽, 오렌지, 레몬, 라임, 만다린의 경우, 1.5 mg/kg에서 0.01 mg/kg으로 MRL이 하향 개정되었음²⁵⁾(7월 24일 발표, 8월 6일 시행)

표 3-7. '20년 및 '21년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관련 유럽연합 RASFF 발표 정보의 생산국-식품유형(중분류) 현황

'21년도 순위	생산국	식품유형(중분류)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	터키	농산물	과일류	20	27.0%	121	35.9%	▲101	▲505.0%
2	터키	농산물	채소류	17	23.0%	42	12.5%	▲25	▲147.1%
3	이집트	농산물	과일류	2	2.7%	28	8.3%	▲26	▲1,300.0%
4	중국	농산물	과일류	5	6.8%	9	2.7%	▲4	▲80.0%
5	인도	농산물	종실류	0	0%	7	2.1%	▲7	-
6	기타*			30	40.5	130	38.6%	▲100	▲333.3%
전체 합계				74	100.0%	337	100.0%	▲263	▲355.4%

*'21년 기준 발생 건수 5건 이하 항목들의 총합

25) 유럽집행위원회, 규정 (EU) 396/2005의 클로르피리포스 및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최대 잔류 수치(MRL) 개정에 관한 규정 (EU) 2020/108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20.239.01.0007.01.ENG&toc=OJ:L:2020:239:TOC)

- '21년 미생물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는 총 2,913건('20년 대비 ▲437건, ▲17.6%)²⁶⁾이며,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는 '13년부터 미생물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균임
- 그 외 세균수, 대장균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균수는 '18년부터 매년 주요 원인균 3위를 차지함
- * 세균수: ('18년) 278건 ⇨ ('19년) 366건 ⇨ ('20년) 269건 ⇨ ('21년) 293건

표 3-8. '20년 및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미생물별 현황 (상위 10개)

'21년도 순위	미생물	2020년	2021년	증감률	순위변동
		건수	건수		
1	살모넬라(Salmonella spp.)	936	983	▲5.0%	-
2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38	738	▲68.5%	-
3	세균수	269	293	▲8.9%	-
4	대장균군	170	265	▲55.9%	-
5	곰팡이수 ²⁷⁾	170	198	▲16.5%	▽1
6	병원성 대장균	74	110	▲48.6%	▲2
7	대장균	111	103	▽7.2%	▽2
8	녹농균	94	38	▽59.6%	▽2
9	미생물일반	49	38	▽22.4%	▲1
10	노로바이러스	85	35	▽58.8%	▽2
10개 항목 합계		2,396	2,801	▲16.9%	
전체 합계		2,476	2,913	▲17.6%	

26) 1건의 위해식품정보에서 복수의 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이를 각각의 개별 건으로 처리

27) 제4장 해외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원인요소별 현황 중 I.미생물은 생물학적 원인요소 중 미생물 정보 외에 물리적 원인 요소의 이물질 중 곰팡이 정보를 포함하여 분석함

□ 지역별 현황

- 미생물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발표지역과 생산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관련 정보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 관련 정보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표되었음
- '21년도에 발생한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경우, 유럽에서는 생산국이 자국 또는 유럽 내 타국가인 비중이 86.1%(1,143건)로 높았으며, 북미에서는 동일 대륙이 생산국인 정보가 73.2%(248건)를 차지함

표 3-9.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관련 지역별 현황 (단위: 건)

정보발지역 \ 생산지역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총합계
유럽	1,143	0	109	45	30	0	1,327
북미	8	248	21	62	0	0	339
아시아	23	0	1	9	0	0	33
오세아니아	2	0	0	0	0	19	21
아프리카	0	0	0	0	1	0	1
합계	1,176	248	131	116	31	19	1,721

- '21년도 세균수와 대장균군 관련 정보의 경우, 아시아 지역 국가가 아시아 국가 생산 식품에 대해 발표한 위해식품정보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음
 - 아시아 지역 국가가 발표한 정보(552건) 중 중국에서 발표한 정보가 289건(자국산 271건, 수입산 18건), 일본에서 발표한 정보가 215건(자국산 25건, 수입산 190건)이었음

표 3-10.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세균수 및 대장균군 관련 지역별 현황 (단위: 건)

정보발표지역 \ 생산지역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중남미	총합계
아시아	509	22	7	7	7	552
유럽	0	3	0	0	0	3
북미	0	1	1	0	0	2
오세아니아	0	0	0	1	0	1
합계	509	26	8	8	7	558

□ 균종별 현황

○ 살모넬라(*Salmonella spp.*)

- '21년도 살모넬라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983건('20년 대비 ▲5.0%, ▲47건)이며, 관련 식품유형은 식육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향신료 순이었음

표 3-11.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살모넬라 관련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단위: 건)

3개년 합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식육류	224	366	369	959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3	184	154	501
3	종실류	183	49	45	277
4	향신료	77	60	122	259
5	농산가공식품류	47	43	48	138
6	채소류	15	41	50	106
7	조미식품	23	43	37	103
8	즉석식품류	24	21	22	67
9	유가공품	28	13	19	60
10	알류	19	21	19	59
1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7	9	27	53
12	견과	15	13	8	36
13	패류	12	4	13	29
14	수산가공식품류	12	8	7	27
15	기타*	86	61	43	190
전체 합계		945	936	983	2,864

* 최근 3년 발생건수 합계 20건 이하인 33개 식품유형의 총합

- '21년도 살모넬라 관련 위해식품정보가 많았던 생산국별 식품유형(소분류)은 폴란드산 닭고기(201건, '20년도 대비 ▽10건, ▽4.7%), 브라질산 후추(101건, ▲55건, ▲119.6%), 프랑스산 소시지류(25건, ▲8건, ▲47.1%) 순이었음

* '19~'21년 살모넬라 관련 폴란드산 닭고기 정보는 '20년의 1건, '21년의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연합 RASFF에서 통보됨

('19년) 111건(모두 RASFF 발표) ⇨ ('20년) 211건(불가리아 식품청 발표 1건, RASFF 210건) ⇨ ('21년) 201건(베트남, 폴란드 발표 각각 1건, RASFF 199건)

* '17~'21년 살모넬라 관련 폴란드산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정보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20년도 유럽연합 RASFF 정보 중 폴란드산 가금류 제품의 살모넬라 검출 통보(273건)는 16개 업체의 반복 적발이 원인으로 확인됨²⁸⁾

* ('17년) 53건 ⇨ ('18년) 64건 ⇨ ('19년) 184건 ⇨ ('20년) 271건 ⇨ ('21년) 279건

28) 통보 273건 중 149건은 신선 가금육에 대한 기준이 설정된 *Salmonella Enteritidis* 관련 정보임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 RASFF 2020 연차보고서(The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Annual Report 2020) ('21.08)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 '21년도 리스테리아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738건('20년 대비 ▲300건, ▲68.5%)이며,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즉석식품류 순으로 정보가 많았음
- * ('20년)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유가공품 > 즉석식품류 순

표 3-12.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리스테리아 관련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단위: 건)

3개년 합계 순위	식품유형(중분류)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69	128	177	474
2	유가공품	118	96	218	432
3	수산가공식품류	88	70	70	228
4	즉석식품류	64	50	76	190
5	버섯류	1	21	62	84
6	채소류	17	7	25	49
7	식육류	14	12	22	48
8	농산가공식품류	24	10	9	43
9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2	8	22	42
10	어류	12	9	15	36
11	우유류	5	0	7	12
12	조미식품	9	2	1	12
13	기타*	40	25	34	99
전체 합계		573	438	738	1,749

* 최근 3년 발생건수 합계 100건 이하인 23개 식품유형의 총합

- '21년도 리스테리아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식품유형(소분류) 현황은 프랑스산 치즈류(125건, '20년 대비 ▲94건, ▲303.2%), 프랑스산 소시지류(47건, ▲25건, ▲113.6%), 한국산 팽이버섯(42건, ▲22건, ▲110.0%), 프랑스산 양념육류(35건, ▲23건, ▲191.7%) 순이었음
- * '21년 프랑스에서 발표한 프랑스산 치즈류 정보(97건)는 전년 대비 ▲81건('20년 16건) 증가했음

○ 세균수 및 대장균군

- '21년도 세균수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293건으로, '20년 대비 ▲8.9% 증가(▲24건) 했으며, 생산국 1순위는 중국(196건, '20년 대비 ▽6.2%), 식품유형(중분류)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74건, ▲15.6%), 수산가공식품류(42건, ▲31.3%) 순이었음
- '21년도 대장균군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265건으로, '20년 대비 ▲55.9% 증가(▲95건) 했으며, 생산국 1순위는 중국(109건, '20년 대비 ▲47.3%), 식품유형(중분류)은 수산가공식품류(63건, ▲133.3%), 빙과류(35건, ▲75.0%) 순이었음

- '21년 곰팡이독소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655건('20년 대비 ▲134건, ▲25.7%)²⁹⁾으로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539건), 오크라톡신 A(61건) 순으로 많았으며, 곰팡이독소 유형별 3개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3. '19~'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곰팡이독소 현황 (단위: 건)

3개년 합계 순위	곰팡이독소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672	425	539	1,636
2	오크라톡신 A(Ocratoxin A)	94	47	61	202
3	파툴린	8	30	33	71
4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14	6	1	21
5	기타	0	2	13	15
6	푸모니신(Fumonisin)	0	9	3	12
7	곰팡이독소일반	7	1	4	12
8	제랄레논(Zearalenone)	1	1	1	3
전체 합계		796	521	655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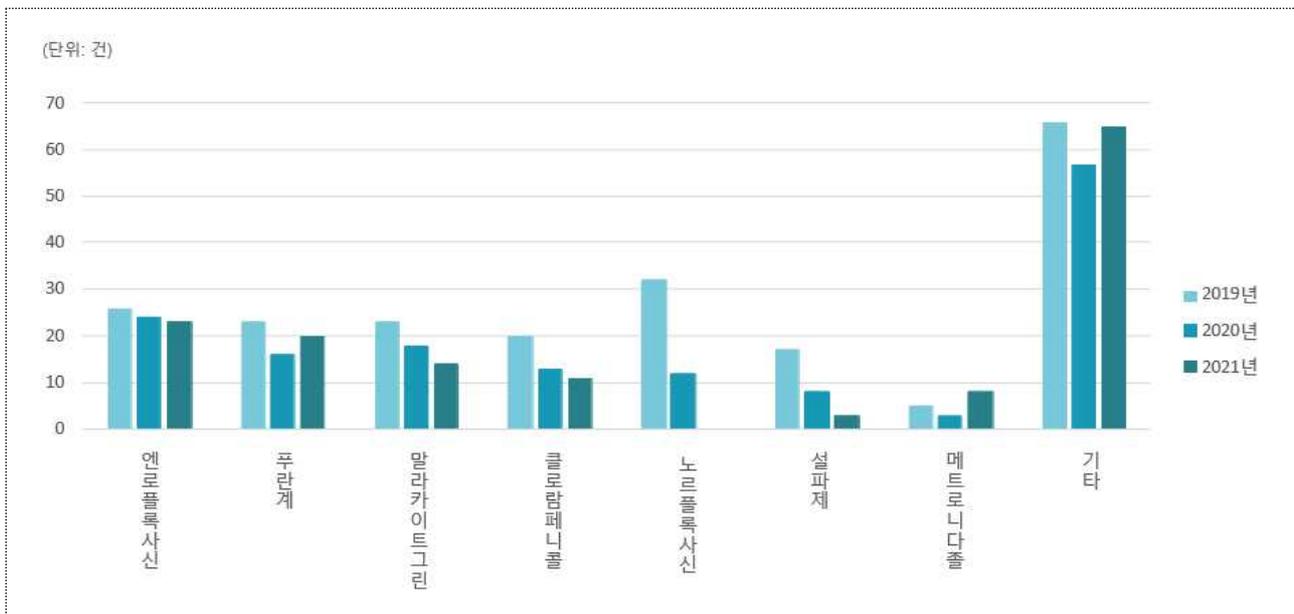
-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84건), 터키(76건), 중국(52건) 순이었으며, 식품유형(중분류)은 견과류(291건), 농산가공식품류(115건), 곡류(29건) 순이었음
- 오크라톡신 A 관련 정보의 생산국은 터키(9건), 프랑스(9건), 스페인(6건) 순이었으며, 식품유형(중분류)은 농산가공식품류(16건), 곡류(16건), 조미식품(9건) 순이었음
- '21년 곰팡이독소 관련 해외 위해식품정보는 대부분 유럽연합 RASFF(379건, 57.9%)와 일본 후생노동성(171건, 26.1%)에서 발표되었으며, 생산국은 터키(86건), 미국(85건), 중국(53건) 순이었음

표 3-14. '21년 곰팡이독소 관련 발표국(상위 2개국) 및 생산국(상위 3개국) 현황 (단위: 건)

생산국	정보발표원		
	유럽연합 RASFF	일본 후생노동성	총합계
미국	35	48	83
중국	8	42	50
터키	82	3	85
합계	125	93	218

29) 1건의 위해식품정보에서 복수의 곰팡이독소가 검출된 경우 이를 개별 처리함

- '21년 동물용의약품 성분 관련 위해식품정보는 총 144건('20년 대비 ▽7건, ▽4.6%)³⁰⁾으로, '16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최신 3개년 성분의 총합은 엔로플록사신(73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푸란계(59건)³¹⁾, 말라카이트그린(55건) 순이었음
- * ('16년) 228건 ⇨ ('17년) 231건 ⇨ ('18년) 255건 ⇨ ('19년) 212건 ⇨ ('20년) 151건 ⇨ ('21년) 144건
 - * ('21년) 엔로플록사신(23건) > 푸란계(20건) > 말라카이트그린(14건) 순



*기타: 3년 발생 건수 합계 15건 이하인 53종 동물용의약품 성분의 총합

그림 3-2. '19~'21년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해외 위해식품정보 현황

- '21년도 동물용의약품 관련 위해식품정보의 정보출처는 는 중국(49건), 유럽연합(36건), 일본(16건), 홍콩(16건) 순으로 많았으며, 생산국별로는 중국(55건), 홍콩(15건), 베트남(9건) 순이었음
- '21년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동물용의약품' 현황은 중국산 식육류의 클렌부테롤(8건), 중국산 식육류의 엔로플록사신(8건), 홍콩산 어류의 말라카이트그린(7건), 인도산 갑각류의 푸란계(7건) 순으로 나타났음

30) 1건의 위해식품정보에서 복수의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이를 개별 처리함

31) 푸란계: 푸라졸리돈/니트로후라존/푸랄타돈((Furazolidone/Nitrofurazon/Furaltadone)

목 임

붙임 1

'21년 식품유형별(중분류) 식품안전정보 현황

식품구분 (대분류)	식품유형 (중분류)	건수	비율	식품구분 (대분류)	식품유형 (중분류)	건수	비율		
식품일반	식품일반	2,464	9.0%	농산물 4,101건 (15.0%)	과일류	870	3.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2,085	7.6%		채소류	858	3.1%		
	농산가공식품류	1,536	5.6%		농산물일반	383	1.4%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1,133	4.1%		견과	375	1.4%		
	가공식품 일반	890	3.3%		향신료	365	1.3%		
	조미식품	811	3.0%		종실류	360	1.3%		
	음료류	774	2.8%		곡류	293	1.1%		
	즉석식품류	722	2.6%		버섯류	187	0.7%		
	빙과류	711	2.6%		콩류	161	0.6%		
	유가공품	689	2.5%		차	77	0.3%		
	주류	581	2.1%		서류	48	0.2%		
	수산가공식품류	559	2.0%		호프	1	*		
	식용유지류	445	1.6%		기타 식물류	123	0.5%		
	면류	383	1.4%		축산물 2,824건 (10.3%)	식육류	2,246	8.2%	
	절임류 또는 조림류	240	0.9%			축산물일반	239	0.9%	
	특수용도식품	175	0.6%			사료	183	0.7%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154	0.6%			알류	94	0.3%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137	0.5%			우유류	40	0.1%	
	장류	100	0.4%			기타	22	0.1%	
	당류	93	0.3%			수산물 1,330건 (4.9%)	어류	390	1.4%
	두부류 또는 묵류	81	0.3%				패류	321	1.2%
	잼류	35	0.1%				수산물일반	197	0.7%
	동물성가공식품류	16	0.1%				갑각류	173	0.6%
	알가공품류	12	*		다랑어류 및 새치류		106	0.4%	
	기타식품류	8	*		연체류		88	0.3%	
건강식품류 1,455건 (5.3%)	건강기능식품일반	724	2.7%	조류	33		0.1%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507	1.9%	어란류	8		*		
	비타민 및 무기질(미네랄)	104	0.4%	극피 또는 척색류	7		*		
	식이섬유	31	0.1%	심해성어류	7		*		
	지방산 및 지질류	28	0.1%	기구용기포장 688건 (2.5%)	기구용기포장일반	361	1.3%		
	발효미생물류	18	0.1%		합성수지제	225	0.8%		
	페놀류	14	0.1%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24	0.1%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14	0.1%		금속제	19	0.1%		
	터핀류	10	*		고무제	17	0.1%		
	당 및 탄수화물류	3	*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14	0.1%		
	기타	2	*		전분제(Starch)	11	0.0%		
	환경 1,133건 (4.1%)	환경일반	661		2.4%	목재류	4	*	
		생수(먹는샘물)	457		1.7%	기타	13	*	
지하수		7	*		식품첨가물 310건 (1.1%)	천연첨가물	103	0.4%	
토양·대기		3	*	식품첨가물일반		96	0.4%		
수돗물		2	*	화학적합성품		76	0.3%		
기타		3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4	*		
위생용품	위생용품	139	0.5%	혼합제제류		3	*		
	외식일반	54	0.2%	기타		28	0.1%		
외식음식 492건 (1.8%)	식품접객업소	331	1.2%	해당없음	6	*			
	집단급식	106	0.4%	기타	1	*			
	자판기	1	*	합계	27,313	100.0%			

* 0.1% 미만

붙임 2

'21년 원인요소별(중분류) 식품안전정보 현황

원인요소 (대분류)	원인요소 (중분류)	건수	비율	원인요소 (대분류)	원인요소 (중분류)	건수	비율	
화학적 원인요소 8,998건 (32.9%)	잔류농약	4,979	18.2%	표시광고 2,630건 (9.6%)	알레르기	1,263	4.6%	
	식품첨가물	1,683	6.2%		원료·성분·함량	429	1.6%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639	2.3%		기간(유통기한 등)	220	0.8%	
	중금속	487	1.8%		광고(허위, 과대 등)	214	0.8%	
	동물용의약품	442	1.6%		원산지	188	0.7%	
	의약품성분	227	0.8%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76	0.3%	
	기타	541	2.0%		영양성분	68	0.2%	
생물학적 원인요소 7,474건 (27.4%)	미생물	4,449	16.3%		신규 원인요소 1,356건 (5.0%)	제품명	60	0.2%
	동식물질병	1,539	5.6%			GMO	13	*
	곰팡이독소	768	2.8%			유기식품	8	*
	생물독소	262	1.0%	기타		91	0.3%	
	기생충	81	0.3%	영양건강 1,102건 (4.0%)		방사능	844	3.1%
	기타	375	1.4%			GMO(LMO)	266	1.0%
물리적 원인요소 1,052건 (3.9%)	이물질	833	3.0%			신규식품	214	0.8%
	성상	197	0.7%			기능성소재	2	*
	방사선조사	16	0.1%	기타		30	0.1%	
	기타	6	*	영양건강 1,102건 (4.0%)		영양성분	721	2.6%
안전위생 4,589건 (16.8%)	안전	2,320	8.5%		건강	299	1.1%	
	위생	2,266	8.3%		영양	82	0.3%	
	기타	3	*	해당없음	59	0.2%		
기타	기타	53	0.2%	합계		27,313	100.0%	

* 0.1% 미만

붙임 3

'21년 식품안전정보의 식품유형별(대분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원인요소	식품유형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식품일반	건강식품류	수산물	환경	기구기포장	외식음식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해당없음	기타	합계	
															건수	비율
화학적 원인요소		3,762	2,408	274	548	740	358	135	545	8	188	29	2	1	8,998	32.9%
잔류농약		1,925	2,183	23	299	423	15	18	0	1	90	0	2	0	4,979	18.2%
식품첨가물		1,305	120	8	55	30	59	8	1	4	92	1	0	0	1,683	6.2%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53	4	6	17	4	2	3	525	0	1	24	0	0	639	2.3%
중금속		173	69	16	23	30	163	4	6	0	3	0	0	0	487	1.8%
동물용의약품		69	4	208	97	2	60	0	0	0	2	0	0	0	442	1.6%
의약품성분		21	1	1	11	188	4	1	0	0	0	0	0	0	227	0.8%
기타		216	27	12	46	63	55	101	13	3	0	4	0	1	541	2.0%
생물학적 위해요소		2,926	1,028	2,163	266	47	613	319	35	72	2	1	2	0	7,474	27.4%
미생물		2,554	443	650	142	36	211	315	34	60	2	1	1	0	4,449	16.3%
등식물질병		26	42	1,447	3	1	19	0	0	0	0	0	1	0	1,539	5.6%
곰팡이독소		287	447	8	25	1	0	0	0	0	0	0	0	0	768	2.8%
생물독소		31	66	1	4	7	153	0	0	0	0	0	0	0	262	1.0%
기생충		3	8	9	18	0	40	1	0	2	0	0	0	0	81	0.3%
기타		25	22	48	74	2	190	3	1	10	0	0	0	0	375	1.4%
안전위생		2,280	255	241	840	257	162	62	79	295	63	53	2	0	4,589	16.8%
안전		899	143	124	657	168	86	21	63	65	56	38	0	0	2,320	8.5%
위생		1,381	112	117	180	89	76	41	16	230	7	15	2	0	2,266	8.3%
기타		0	0	0	3	0	0	0	0	0	0	0	0	0	3	0.0%
표시광고		1,818	113	71	259	209	83	6	20	39	9	3	0	0	2,630	9.6%
알레르기		1,123	41	10	23	43	22	0	0	0	1	0	0	0	1,263	4.6%
원료·성분·함량		299	13	3	44	45	6	2	1	13	3	0	0	0	429	1.6%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160	5	15	24	3	6	1	0	6	0	0	0	0	220	0.8%
광고(허위, 과대 등)		47	9	1	51	86	4	3	8	1	3	1	0	0	214	0.8%
원산지		44	22	28	43	1	38	0	0	12	0	0	0	0	188	0.7%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29	4	3	5	20	0	0	11	1	1	2	0	0	76	0.3%

원인요소	식품유형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식품일반	건강식품류	수산물	환경	기구포장	외식음식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해당없음	기타	합계	
															건수	비율
영양성분		35	5	0	22	2	0	0	0	4	0	0	0	0	68	0.2%
제품명		37	4	0	6	7	5	0	0	1	0	0	0	0	60	0.2%
GMO		2	2	1	5	0	1	0	0	1	1	0	0	0	13	0.0%
유기식품		0	3	0	5	0	0	0	0	0	0	0	0	0	8	0.0%
기타		42	5	10	31	2	1	0	0	0	0	0	0	0	91	0.3%
신규 위해요소		79	139	14	352	94	64	585	0	1	28	0	0	0	1,356	5.0%
방사능		7	23	4	179	1	47	583	0	0	0	0	0	0	844	3.1%
GMO(LMO)		21	78	8	130	1	8	0	0	1	19	0	0	0	266	1.0%
신규식품		47	29	2	37	89	1	0	0	0	9	0	0	0	214	0.8%
기능성소재		1	0	0	0	1	0	0	0	0	0	0	0	0	2	0.0%
기타		3	9	0	6	2	8	2	0	0	0	0	0	0	30	0.1%
영양건강		733	25	22	152	90	21	11	0	34	14	0	0	0	1,102	4.0%
영양성분		554	11	11	40	60	18	10	0	7	10	0	0	0	721	2.6%
건강		146	13	9	80	26	0	1	0	21	3	0	0	0	299	1.1%
영양		33	1	2	32	4	3	0	0	6	1	0	0	0	82	0.3%
물리적 위해요소		767	128	28	11	16	26	14	7	43	6	6	0	0	1,052	3.9%
이물질		667	58	21	8	9	12	7	4	43	2	2	0	0	833	3.0%
성상		94	67	7	1	5	7	6	2	0	4	4	0	0	197	0.7%
방사선조사		4	3	0	2	2	5	0	0	0	0	0	0	0	16	0.1%
기타		2	0	0	0	0	2	1	1	0	0	0	0	0	6	0.0%
해당없음		5	5	5	31	2	3	1	1	0	0	6	0	0	59	0.2%
기타		0	0	6	5	0	0	0	1	0	0	41	0	0	53	0.2%
합계		12,370	4,101	2,824	2,464	1,455	1,330	1,133	688	492	310	139	6	1	27,313	100.0%

붙임 4

'21년 상위 10개국 식품안전정보의 식품유형별(대분류) 현황

식품유형 \ 정보발표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대만	벨기에	필리핀	독일	합계	
											건수	비율
가공식품	3,933	1,292	928	1,810	916	375	311	454	505	235	10,759	39.4%
농산물	301	1,509	616	149	285	133	497	56	13	73	3,632	13.3%
식품일반*	226	226	557	62	282	438	112	9	50	62	2,024	7.4%
축산물	289	713	271	125	142	165	90	33	27	89	1,944	7.1%
수산물	240	347	92	64	78	199	93	10	3	2	1,128	4.1%
건강식품류	76	341	60	267	173	70	37	48	25	30	1,127	4.1%
환경	467	13	359	15	38	129	25	2	2	6	1,056	3.9%
기구용기포장	84	251	37	23	53	28	131	23		12	642	2.4%
외식음식	61		24	9	12	300	19	1	1	1	428	1.6%
식품첨가물	27	119	19	8	9	26	51	4		4	267	1.0%
위생용품	28	4	5	8	11	27	1	3	3	3	93	0.3%
해당없음	2	1		1				1			5	0.0%
기타					1						1	0.0%
합계	5,734	4,816	2,968	2,541	2,000	1,890	1,367	644	629	517	23,106	84.6%

* 식품일반 : 특정 식품이 아닌 식품 전반에 적용되는 정보

붙임 5

'21년 상위 10개국 식품안전정보의 원인요소별(중분류) 현황³²⁾

정보발표국 원인요소	중국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대만	벨기에	필리핀	독일	합계	
											건수	비율
화학적 원인요소	1,511	2,204	879	1,566	342	165	1,041	330	2	181	8,221	30.1%
잔류농약	130	1,376	526	1,456	105	77	558	281	1	110	4,620	16.9%
식품첨가물	931	215	173	45	16	10	175	7	0	8	1,580	5.8%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23	248	50	23	45	20	131	25	0	18	583	2.1%
중금속	124	134	8	6	45	8	106	1	0	5	437	1.6%
동물용의약품	177	48	82	6	7	22	48	3	0	11	404	1.5%
의약품성분	13	32	8	3	67	14	8	2	1	1	149	0.5%
기타	113	151	32	27	57	14	15	11	0	28	448	1.6%
생물학적 원인요소	1,907	1,570	781	584	607	278	109	114	26	180	6,156	22.5%
미생물	1,495	1,010	308	464	518	83	29	71	0	84	4,062	14.9%
동식물질병	91	86	252	75	47	85	46	22	25	73	802	2.9%
곰팡이독소	40	392	183	23	5	13	29	16	0	16	717	2.6%
생물독소	9	52	33	12	9	90	1	3	0	2	211	0.8%
기생충	3	26	2	4	19	0	1	0	0	1	56	0.2%
기타	269	4	3	6	9	7	3	2	1	4	308	1.1%
안전위생	1,625	268	174	82	258	710	112	12	587	14	3,842	14.1%
위생	1,311	153	95	48	57	343	37	6	1	2	2,053	7.5%
안전	314	115	78	34	201	366	75	6	586	12	1,787	6.5%
기타	0	0	1	0	0	1	0	0	0	0	2	0.0%
표시광고	128	258	281	155	524	293	51	137	1	48	1,876	6.9%
알레르기	0	190	82	77	359	2	2	114	0	29	855	3.1%
원료·성분·함량	76	22	30	24	85	35	22	7	1	13	315	1.2%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3	15	89	33	6	35	2	14	0	2	199	0.7%
원산지	2	4	12	8	7	116	5	1	0	0	155	0.6%

32) 대한민국 제외

정보발표국 원인요소	중국	유럽연합	일본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	대만	벨기에	필리핀	독일	합계	
											건수	비율
광고(허위, 과대 등)	3	10	22	4	24	64	5	1	0	1	134	0.5%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27	2	4	3	4	15	6	0	0	2	63	0.2%
제품명	6	2	3	4	24	6	4	0	0	0	49	0.2%
영양성분	4	5	1	1	9	10	3	0	0	1	34	0.1%
GMO	0	0	2	0	1	7	1	0	0	0	11	0.0%
유기식품	0	2	0	0	4	0	0	0	0	0	6	0.0%
기타	7	6	36	1	1	3	1	0	0	0	55	0.2%
신규 위해요소	70	229	598	19	51	207	34	1	5	14	1,228	4.5%
방사능	60	3	490	7	12	187	31	0	1	6	797	2.9%
GMO(LMO)	8	59	89	7	26	19	3	1	4	2	218	0.8%
신규식품	0	163	0	5	12	1	0	0	0	5	186	0.7%
기능성소재	0	1	0	0	0	0	0	0	0	0	1	0.0%
기타	2	3	19	0	1	0	0	0	0	1	26	0.1%
물리적 위해요소	36	197	208	103	107	128	9	38	3	51	880	3.2%
이물질	26	161	102	80	99	123	7	35	2	43	678	2.5%
성상	9	27	102	22	8	5	1	3	0	7	184	0.7%
방사선조사	0	9	3	1	0	0	0	0	0	0	13	0.0%
기타	1	0	1	0	0	0	1	0	1	1	5	0.0%
영양건강	457	76	31	29	102	101	11	10	2	25	844	3.1%
영양성분	450	56	18	11	10	40	4	3	1	16	609	2.2%
건강	5	17	11	10	87	22	7	5	1	5	170	0.6%
영양	2	3	2	8	5	39	0	2	0	4	65	0.2%
해당없음	0	7	15	1	2	7	0	1	0	2	35	0.1%
기타	0	7	1	2	7	1	0	1	3	2	24	0.1%
합계	5,734	4,816	2,968	2,541	2,000	1,890	1,367	644	629	517	23,106	84.6%

붙임 6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현황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프랑스	2,559	17.46%	칠레	53	0.36%	이스라엘	12	0.08%	아랍에미리트	4	0.03%
중국	1,809	12.35%	에콰도르	53	0.36%	볼리비아	12	0.08%	알제리	4	0.03%
미국	1,080	7.37%	남아프리카공화국	52	0.35%	리투아니아	11	0.08%	에티오피아	4	0.03%
일본	688	4.70%	말레이시아	51	0.35%	코트디부아르	11	0.08%	벨라루스	3	0.02%
벨기에	677	4.62%	멕시코	46	0.31%	세네갈	11	0.08%	파나마	2	0.01%
필리핀	576	3.93%	덴마크	43	0.29%	우즈베키스탄	11	0.08%	아이슬란드	2	0.01%
독일	512	3.49%	코스타리카	41	0.28%	크로아티아	10	0.07%	가이아나	2	0.01%
터키	503	3.43%	스웨덴	38	0.26%	우루과이	10	0.07%	베네수엘라	2	0.01%
폴란드	465	3.17%	그루지야	36	0.25%	알바니아	10	0.07%	몽골	2	0.01%
인도	378	2.58%	체코	36	0.25%	라오스	10	0.07%	키프로스	2	0.01%
대한민국	371	2.53%	헝가리	36	0.25%	세르비아	9	0.06%	유럽연합	2	0.01%
캐나다	361	2.46%	페루	35	0.24%	라트비아	9	0.06%	니제르	2	0.01%
영국	317	2.16%	파키스탄	33	0.23%	네팔	9	0.06%	짐바브웨	2	0.01%
제외국	272	1.86%	미얀마	32	0.22%	에스토니아	9	0.06%	모잠비크	2	0.01%
스페인	270	1.84%	우크라이나	31	0.21%	캄보디아	9	0.06%	베냉	2	0.01%
대만	253	1.73%	그리스	28	0.19%	도미니카공화국	8	0.05%	부르키나파소	2	0.01%
네덜란드	253	1.73%	우간다	27	0.18%	파라과이	8	0.05%	몰도바	1	0.01%
베트남	240	1.64%	러시아	27	0.18%	노르웨이	8	0.05%	트리니다드토바고	1	0.01%
이탈리아	231	1.58%	포르투갈	23	0.16%	니카라과	7	0.05%	아이티	1	0.01%
브라질	196	1.34%	불가리아	22	0.15%	아제르바이잔	7	0.05%	리비아	1	0.01%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생산국	건수	비율
태국	193	1.32%	나이지리아	20	0.14%	모리타니	7	0.05%	몰디브	1	0.01%
호주	164	1.12%	가나	20	0.14%	요르단	7	0.05%	카자흐스탄	1	0.01%
아르헨티나	115	0.78%	핀란드	19	0.13%	튀니지	6	0.04%	과테말라	1	0.01%
인도네시아	108	0.74%	싱가포르	18	0.12%	마다가스카르	6	0.04%	말리	1	0.01%
이집트	104	0.71%	슬로베니아	16	0.11%	마케도니아공화국	5	0.03%	솔로몬제도	1	0.01%
스위스	92	0.63%	룩셈부르크	16	0.11%	온두라스	5	0.03%	나미비아	1	0.01%
홍콩	92	0.63%	루마니아	15	0.10%	카메룬	5	0.03%	도미니카	1	0.01%
아일랜드	88	0.60%	레바논	15	0.10%	토고	4	0.03%	레소토	1	0.01%
뉴질랜드	80	0.55%	마카오	15	0.10%	모리셔스	4	0.03%	보츠와나	1	0.01%
오스트리아	74	0.51%	시리아	14	0.1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0.03%	오만	1	0.01%
콜롬비아	69	0.47%	세이셸	14	0.10%	바누아투	4	0.03%	예멘	1	0.01%
모로코	64	0.44%	슬로바키아	14	0.10%	포클랜드제도	4	0.03%	기타	1	0.01%
이란	62	0.42%	몰타	13	0.09%	탄자니아	4	0.03%	카보베르데	1	0.01%
스리랑카	56	0.38%	방글라데시	12	0.08%	사우디아라비아	4	0.03%	케냐	1	0.01%
									합계	14,653	100.00%

붙임 7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식품유형(중분류) 현황

식품유형	생산국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합계	
가공식품		1,946	938	637	467	503	500	294	113	86	117	197	233	210	44	119	108	121	68	141	16	6,858	
가공식품 일반		12	5	8	2		363	1				1	4	2	4								40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316	237	147	105	71	35	38	20	15	6	30	30	53	8	16	8	25	5	29	1	1,195	
농산가공식품류		141	187	108	25	57	13	45	63	5	32	6	40	22	6	11	13	16	14	20	6	830	
당류		4	12	1	1	5	2	2									2	1				30	
동물성가공식품류		1										1										2	
두부류 또는 묵류		2	4		2			4					2				5					19	
면류		20	24	6	22	18	5	11			1	61	1	4	2		11	2	7	4		199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2	31	1	7	1			1		1		1									45	
빙과류		447	16	16	16	60		3	1	7	1		3	5		11	2	3		3	1	595	
수산가공식품류		66	72	35	42	9	5	5	2	13	3	42	16	10	1	10	13	3	25	3		375	
식용유지류		19	25	4	2	6	3	17	2				5	1	3			4		5	2	98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301	53	39	28	82	6	37		27			25	38	1	33	2	11	1	10	4	698	
알가공품류		1		1		1				2												5	
유가공품		248	5	39	18	48	3	16	1	4		1	25	12	1	6	1	9		29		466	
음료류		25	42	43	61	21	33	29	3		17	43	5	12	7	1	21	6	1	14	1	385	
장류			12		9											1						22	
잼류		12			8	2		1	2			1	3	1								30	
절임류 또는 조림류		6	39	2	18	7	1	8	3	1	2	2	4	3	2	3	12	1	8	1		123	
조미식품		98	39	63	47	48	12	23	12	1	53	7	21	12	5	15	3	16	5	11		491	
주류		10	92	1	11	2	1	4		1			3			2	1				3	131	
즉석식품류		185	39	90	33	57	15	32	1	4	1		40	21	1	5	9	15	2	5		55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22	2	26	6	8	3	12	2	6		2	5	7		6		6		2	1	116	
특수용도식품		8	2	7	2			6						7	1		5	3		2		43	
기타식품류					2										1							3	
건강식품류		285	28	161	12	46	22	74	4	17	26	26	41	36	40	16	8	27	11	11		891	
기구용기포장		18	316	13	13	14		19	2	3	1	1	1	9	71	4	27	4	4	3	1	524	

식품유형	생산국																				합계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농산물	130	345	212	145	67	8	44	371	21	195	104	69	19	25	28	73	32	107	35	159	2,189
농산물일반		2	1			1				1						6					11
견과	1	56	71	2	3		9	26		12				1	4		3	4	2	8	202
곡류	28	9	32	3	8		3	3	2	17		10	4	1	7	1	6	4	6		144
과일류	3	52	42	61	7	2	4	180	3	5	1	6	1	1	4	19	1	34	11	43	480
버섯류	3	45	6	7	4	1	3				49	6				7	3	2	1	1	138
서류		3		1	1										1	1			1	1	9
종실류	29	5			13		5	7	4	95	1	32	2	9	3		7		5	3	220
차	8	9		1		1	2			1							1	8			31
채소류	18	116	45	60	10		1	139	6	11	53	10	2	2	6	29	8	24	7		547
콩류	1	22	6	2	8		2	2	1	6		3	2	2	1	4		6		2	70
향신료	34	16	9	3	13	3	13	13	5	37		2	6	8	1	3	2	6	2	102	278
기타 식물류	5	10		5			2	1		10			2		1	4	1	18			59
수산물	73	45	17	29	9	1	1	5	3	18	34	10	8	6	89	7	16	37	23	3	434
수산물일반	2	1	2		1	1					2		1				1	1			12
감각류	9	5	3	1				2		9		6	1	1	5	1	5	4	1	3	56
극피 또는 척색류											1	1						3			5
다랑어류 및 새치류	8	2	1	1						2	6				1	50		4	3		78
심해성어류															1						1
어란류				1							2					1					4
어류	18	11	4	21	2		1	1	3	1	6	1	2	3	7	5	4	7	2		99
연체류		9		1						6	2				7		1	4	2		32
조류		7			1						10							1			19
패류	36	10	7	4	5			2			5	2	4	1	19		5	13	15		128
식품일반	3	7	2			43	2		1	2	1				1		9		2	1	74
식품첨가물	13	17	6	5	8		11	7	1	12	1		3	3	6		6	1	10	1	111
식품첨가물일반	5	4		1	2		2			2					1	1		1		1	20
천연첨가물	3	7	3		3		8	6	1	7	1		2	2	1		5		7	1	57
혼합제제류	1							1							1						3
화학적합성품	1	6	3	4	1		1			2			1					1	1		21
기타	3				2					1					3				1		10

식품유형	생산국																				합계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외식음식																9					9	
식품접객업소																9					9	
위생용품	2	20			1		2														1	26
축산물	86	37	28	12	28	2	62		333	7	7	7	32	82	8	10	47	10	5	15	818	
축산물일반													1	3								4
식육류	84	31	16	12	27	2	59		326	7	7	7	31	78	6	10	46	10	5	15	779	
알류	2	4			1		2		7					1	2		1					20
우유류			12				1															13
기타		2																				2
환경	3	56	4	5	1		3	1								2				2		77
환경일반																1						1
생수(먹는샘물)	3	56	4	5	1		3	1							1				2			76
합계	2,559	1,809	1,080	688	677	576	512	503	465	378	371	361	317	272	270	253	253	240	231	196	12,011	

붙임 8

'21년 상위 20개국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생산국별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원인요소	생산국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합계
화학적 원인요소		1,616	858	172	263	338	16	187	365	58	289	115	36	60	115	143	158	61	157	100	57	5,164
기구용기포장유래물질		16	246	10	19	16		25	3	3	1	1	2	10	64	5	24	5	4	4	2	460
동물용의약품		5	54	4	2	3			1	4	8	1	2		1		7	2	9	2		105
식품첨가물		45	200	17	51	6	10	10	11	3	14	34	2	7		30	34	7	21	18	38	558
의약품성분		2	3	61	8	2		1	4	1		5	21	9	4	4	6	2	2			135
잔류농약		1,519	279	45	160	297	5	116	337	36	249	65	5	27	23	56	76	34	108	64	13	3,514
중금속		9	44	22	16	2		1		2	13	7	1	2	2	44	9	1	8	11	2	196
기타		20	32	13	7	12	1	34	9	9	4	2	3	5	21	4	2	10	5	1	2	196
생물학적원인요소		612	480	316	56	130	7	156	116	370	65	91	116	74	96	76	60	82	61	76	130	3,170
곰팡이독소		26	53	85		16		16	86	4	33			2	7	16	3	7	8	13	8	383
기생충		1	1	5								1	2			4		2				16
동식물질병		31	4	7	11	4	2	41		57	6	7		23	79	1	4	21	8	3	5	314
미생물		545	416	216	38	107	5	96	17	307	26	82	101	48	9	49	51	47	44	58	115	2,377
생물독소		8	6	2	7	3		3	13	2		1	13	1	1	6	2	5	1	2	2	78
기타		1		1																		2
표시광고		137	61	362	199	151	3	52	8	20	4	94	109	106	14	27	18	56	4	20	1	1,446
GMO																	1					1
광고(허위, 과대 등)		1	2	1	1			1		1				2	1		1		1			12
기간(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32		1	77	16		6		2			1	4		1	1	3		1		145
안내(경고, 주의사항 등)		2	16		4							3	7	1			4	1	2			40

원인요소	생산국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합계
	알레르기		92	23	320	75	131	2	41	7	14	3	34	95	96	8	26	2	46		17	1
영양성분		1	2	2	1					1		4	1									12
원료·성분·함량		6	14	17	26	3	1	4	1	2	1	53	5	3			6	5	1	2		150
원산지					4																	4
유기식품															1							1
제품명		3		20	3													1				27
기타			4	1	8	1									4		3					21
안전위생		57	275	73	22	9	547	15	7	3	9	48	47	23	19	6	9	9	6	8	4	1,196
안전		18	35	32	4	4	546	9	2		8	18	9	12	15	2	4	3	4	2	1	728
위생		39	240	41	18	5	1	6	5	3	1	30	38	11	4	4	5	6	2	6	3	468
물리적 원인요소		126	24	132	132	46	1	84	5	12	7	1	50	37	2	14	3	25	6	21	3	731
방사선조사			3	3						2									5		1	14
성상		25	14	35	36	4		12	1	1	1	1	20	2				1			2	155
이물질		101	7	94	95	42	1	71	4	9	6		30	35	2	14	3	24	1	21		560
기타					1			1														2
영양건강		1	100	15	5	2	1	9	1	2	1	21	1	4	3	1	4	4	3	2		180
건강																		1				1
영양성분		1	100	15	5	2	1	9	1	2	1	21	1	4	3	1	4	3	3	2		179
신규 원인요소		10	10	10	11		1	9	1		3	1	2	13	23	3	1	16	3	4	1	122
GMO(LMO)		3	6				1	1						1	1			1	2			16
기능성소재								1														1
방사능					11												1			1		13

원인요소	생산국	프랑스	중국	미국	일본	벨기에	필리핀	독일	터키	폴란드	인도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제외국	스페인	대만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브라질	합계
	신규식품		7	4	10				6	1		3	1	2	12	21	3		15	1	3	1
기타								1							1							2
해당없음			1			1																2
합계		2,559	1,809	1,080	688	677	576	512	503	465	378	371	361	317	272	270	253	253	240	231	196	12,011

붙임 9

'21년 해외 위해식품정보의 식품유형별(중분류) 원인요소(중분류) 현황

원인요소 식품유형	화학적 원인요소							생물학적 원인요소					표시광고					안전위생		물리적 원인요소			영양건강			신규 원인요소			해당없음	합계										
	기용포유물	구기장래질	동물유래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의약품	중금속	기타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병	미생물	생물독소	기타	GMO	광고	기간	안내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성분·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명	기타	안전	위생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기타	건강	영양성분	GMO	기능성소재	방사능	신규식품	기타
가공식품	45	33	530	11	1884	62	140	233		16	1,624	26	1	1	5	129	14	1,094	10	130	3	21	29	623	398	9	89	563	2	1	135	12		4	33	3	1	7,914		
가공식품 일반				1	14		3				4					1		9		1			1	367	7			1		2	1							41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77		287	1	24	20			184	2	1		1	23	2	332		36		3	1	58	100	2	4	146	1	1	23	1							1,331	
동식물산 가공식품류	13		80	1	194	21	2	141			145	11			1	8	1	167		7		6	2	22	80	6	11	83	1		5	1		2					1,011	
당류			2		3	5		1			1							3						2	8			8			4								37	
동물성 가공식품류					1																			1																2
두부류 또는 묵류			5		2						5			1										4	2															19
면류			23		59			12			20					7		58	1	27				2	8		1	12					1							231
발효 및 화학분 가공품류	18		1	20						12				1				1	1				3							5			2						64	
빙과류	1		4		52			1			45							26		3					4		1	11			5							1	634	
수산물 가공품류	2	6	49		37	11	19				203	2			22	2	40		7	1		2	2	10	16		3	19			6								459	
식용유지류	1		23		28		48				7				2		8						16	16	14			1			1					5			170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2	9	14	1	84	2	7			1	375				20	3	60	3	3			3		19	38		39	66			3								752	
알가공품류											1				1		3																						5	
유가공품	1		9		57		8			15	329	1			5		24		5			2	16	21		8	31			7									539	
음료류	8		38	3	139	1	19	29			53	4			2	9	1	17	2	12		2	1	48	30		7	34			11					23	2		495	
장류	1		3								3				1		1		1	1					9		1	1												22
잡류			3	1	5						2						5										1	16			1									34
절임류			70	1	9	3					12				6		11		2	1					2	2		4	20			3							146	

원인요소 식품유형	화학적 원인요소						생물학적 원인요소						표시광고										안전 위생		물리적 원인요소			영양건강			신규 원인요소				해당없음	합계						
	기용포유류	구기장래질	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의약품성분	잔류	류약	중금속	기타	곰팡이독소	기생충	동식물질염	미생물	생물독소	기타	GMO	광고	기간	안내	알레르기	영양성분	원료·성분·함량	원산지	유기식품	제품명	기타	안전	위생	방사선조사	성상	이물질	기타	건강	영양성분	GMO		기능성소재	방사능	신규식품	기타	해당없음	
축산물일반										4																	1															5
식육류	1	55	5		1	7			1	415	436						10	1	10						1	12	8		5	10				1								979
알류		6			1					1	19																1														28	
우유류							1				18																	1													20	
기타		2																									1														3	
환경			1				10				43					1					1					6	10		6	1			3			1				83		
생수(먹는샘물)			1				10				43					1						1				6	10		6	1			3								82	
환경일반																																					1				1	
합계	495	138	740	191	4,147	292	278	663	35	443	2,753	102	3	1	58	153	41	1,211	15	170	4	1	29	45	836	596	17	184	638	3	1	198	17	1	17	129	4	4	14,653			

알림

「2021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는 2021년 수집한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안전정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1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발행일 : 2022년 6월
편집집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발행처 : 식품안전정보원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3층
전화 : 02-744-7275, <http://www.foodinfo.or.kr>

비매품